

CONTENTS

• 대 상

나의 수신(修身): 빠르게 보단 올곧게 걸어가라 홍의표 | 사회학과 06

• 최우수상

수신, 내가 나아갈 길을 찾는다 남예빈 | 수학과 16

나다운 '나' 를 만들기 위한 『논어』 한 스푼 이지현 | 경제학과 24

그 시절, 아버지가 서성이던 우리 집 정재한 | 경영학과 32

• 우 수 상

수신(修身): 나의 자아를 찾아 김인영 | 교육학과 41

끊임없는 방황, 끊임없는 수신(修身)
그리고 끊임없는 깨달음 배한경 | 글로벌경제학과 49

사색하는 수신자(修身者) 성은주 | 인문과학계열 56

팔 할의 바람 안 샘 | 유전공학과 65

미완예찬(未完禮讚) 유병훈 | 글로벌경제학과 70

수신,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 전효진 | 사학과 74

• 장 령 상

수신(修身): 참된 나 이루기 김현진 | 신소재공학부 81

『논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김화현 | 통계학과 89

깨끗한 비단이 되어 눈물 닦아주기 류다영 | 미술학과 96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박채원 | 영상학과 103

나는 나답게(我我) 변준석 | 경영학과 108

'나' 를 위한 길 위에서
수신(修身)의 의미를 묻다 서수현 | 경영학과 115

나의 수신(修身)이야기 - 『논어』 첫 문자 학(學) 서예림 | 경제학과 122

『논어』에서 찾은 3A -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하여 서현우 | 전자전기공학과 130

실패를 수양의 기회로 삼자 엄규동 | 전자전기공학부 135

참된 나 이루기 이해든 | 신소재공학부 142

내 눈 속의 들보 이희로 | 러시아문학과 149

아모르 파티(Amor Fati) 조영규 | 경영학과 155

수신(修身), 매 순간 되돌아보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조혜민 | 글로벌경영학과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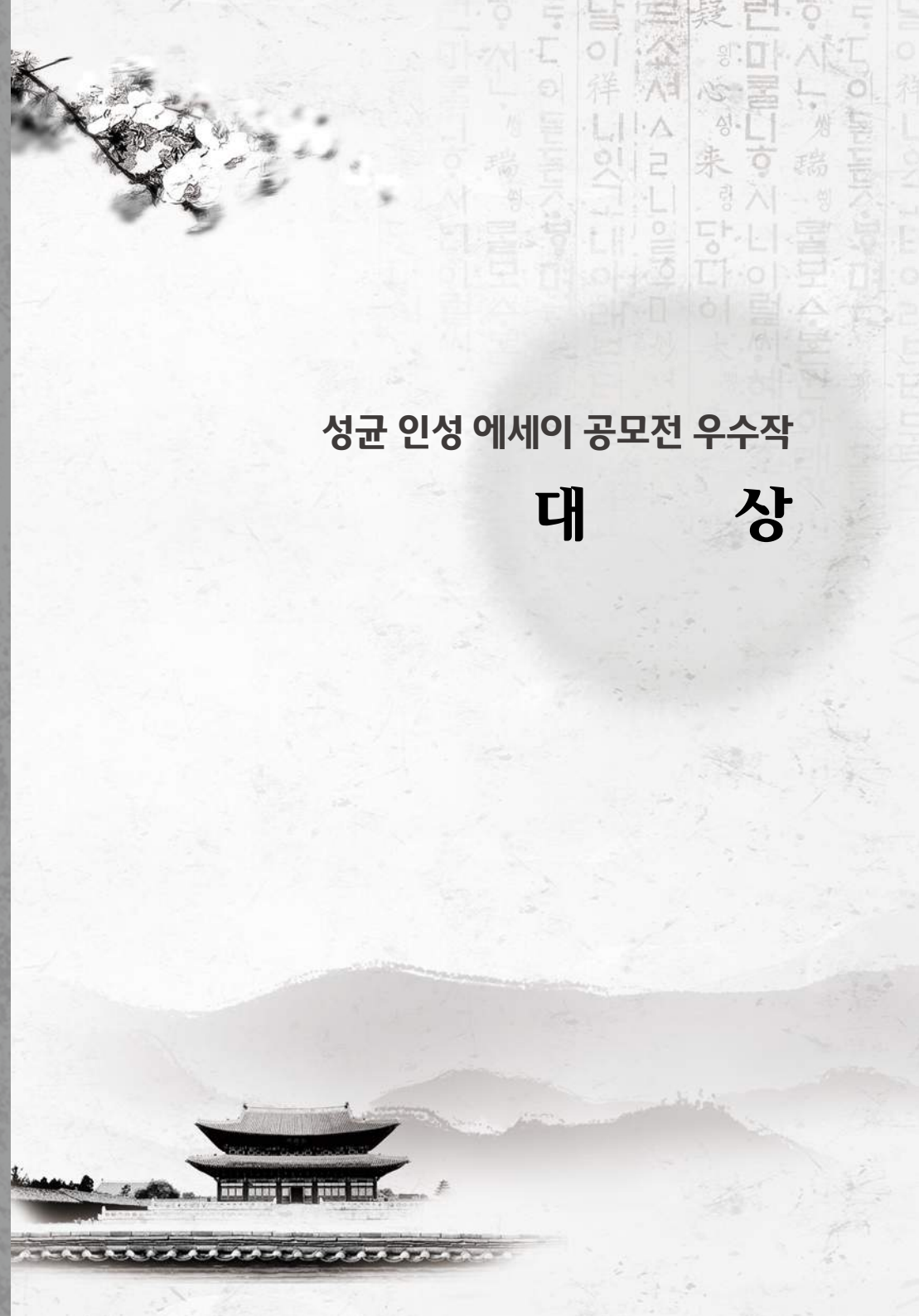
수신(修身):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힘을 기를 것 최두영 | 경영학과 169

이별, 그 후에 오는 것들 허옥엽 | 문헌정보학과 176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대 상



나의 수신(修身): 빠르게 보단 올곧게 걸어가라

홍의표 | 사회학과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성찰과 계발을 독려하는 유명 연사들의 강연과, 각종 자기계발서의 범람은 그만큼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 방향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일련의 기준을 세워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수신(修身)인지는 미지수이다. 유명한 사람의 조언이니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신의 삶도 의미 있게 변화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는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고치고 새로이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자기계발의 논리로 투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목표를 고려할 때, 나에게 있어 수신, 곧 참된 나를 이루는 일이란 다음의 논의에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궐당의 동자가 공자의 명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이 그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이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그 아이는 윗자리에 앉아 있고, 그가 선배들과 나란히 걸어 가는 것을 보니, 나아가려는 아이가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아이입니다.”¹⁾ (「현문」)

‘빨리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올바르고 곧게(正直) 나아가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승자독식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인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수신의 방법은 바로 빨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득한 사회, 즉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옆 사람은 벗어나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팔꿈치로 가격하여 떨어뜨려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²⁾ 이러한 ‘팔꿈치 사회’에서의 성공은 대개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련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인간이 지닌 본연의 욕구 중 하나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소위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성공 자체를 핵심적인 문제라 매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 의식과 명확한 목표가 없는, 외면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의

1) 김원중 옮김, 『논어』, 글항아리, 2015, pp.276-277.

2) 정수복 외, 『사회를 말하는 사회』, 북바이북, 2014, p.156.

수양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 는 지적이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³⁾(「현문」) 수신에 과정이 결여된 배움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목표 의식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우선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배움으로 흐르게 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행복 측면에서도, 사회적 차원의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공자가 언급했듯 진정한 배움이란 상호주관적 세계 안에서 주체적 개인을 추구하는 위기지학이지, 보여주기 위한 위인지학이 아닌 것이다.

나의 사례에 비추어보자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삶은 인정받기 위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큰 고민 없이 특목고에 진학했고, 재수 생활까지 거쳤다. 당연히 이 모든 경험이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진정 무엇을 위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을 선택해야 하면서 보다 깊은 고민과 내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위한 배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돌아보지 않은 채, 소위 ‘주류 전공’ 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떠밀려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에 닿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금 나의 전공인 사회학을 선택했다는 것을 후회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하다고 여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자기 수양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배움에서 기인한 성공이 반드시 행복으로 귀결될 이유도 없다. 분명한 것은 ‘수신’ 없는 ‘제가’, ‘치국 평천하’ 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구차하게 자기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드높은 세계에 충실한 이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다.⁴⁾ 오히려 자아성찰과 각성에서 비롯된 배움은 위기지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혹자는 ‘일단사 일표음’에만 만족하고 살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과연 올바르게 앞으로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반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곤궁함에서 오는 우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는 것에 대한 의문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현 상황 속에서 ‘수양을 위한 배움’, 즉 수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서 미리 선을 긋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⁵⁾(「옹야」)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노오력’ 담론과는 거리가 멀다. ‘노오력’ 담론과 그러한 ‘노오력’에 대한 종용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빨리 가는 것’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반면 자기 수양과 수신에 대한 노력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공자의 지적은 표면적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닌 올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적이다. 내가 지향하는바 또한 수신을 위한 노력 중에 한계 짓고 포기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여정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앞서 짚었던 자기 수양에 대한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짓고 포기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도중에도 여러 난관과 마주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의한 언행 불일치이다. 도리에 맞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리 우월하며 특별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이 이어지면 ‘나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자의식 속에 갇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할 우려가 있다. “군자는 자신의 말이 그의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현문」)해야 한다.⁶⁾ 말로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속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식초를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게 제 것인

3) 김원중 옮김, 앞의 책, p.267.

4)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p.270.

5) 김원중 옮김, 앞의 책, p.120.

6) 위의 책, p.268.

양 버젓이 빌려주고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은 미생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⁷⁾(「공야장」) 정직하지 못한 행실은 곧 언행 불일치이며, 이는 분명 빠른 길 대신 바른 길을 가려는 이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교훈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고 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자신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든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서’는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⁸⁾ 말 그대로,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방향만 옳다고 생각하기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의 맥락에서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기 수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덕목임은 사실이나, 각자의 삶의 맥락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지만,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자로」)는 가르침을 떠올릴 때이다.⁹⁾ 나 스스로가 충분히 타인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바르게 생활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나의 입장을 관철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서’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 스스로 상정한 자기 수양 과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한 일화가 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 부시맨을 조사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던 인류학자 리처드 리의 경험담으로, 그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흐벅진 잔치를 베풀고자 살진 소를 부족에게 선물하고자 했다. 그러나

분명 충분히 살진 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민들은 거둬 소에 대해 불평과 혐담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그는 부족민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았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차피 그 고기를 모두가 먹을텐데, 왜 사람을 일 부러 곤경에 빠뜨려 놓고 모욕을 주는 거지요?” “그건 교만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짐승을 잡게 되면 그는 자기가 무슨 추장이나 그에 버금가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하인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중략)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가 정말 형편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차지 않게 하여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¹⁰⁾

위 예화에서 드러나듯, 어떠한 근사한 일을 행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내심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빠른 길이 아닌 앞으로 가는 길을 가려 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이 미처 살피지 못한 모자란 점이나, 관계에 있어서 범했을 실수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공자는 “스스로를 단속하는데 실수하는 자는 드물다”(「이인」)라고 제자들을 일깨운 바 있다.¹¹⁾

나 역시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동아리 후배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느낀 것이다. 지난 학기에 동아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는 동아리방 정리를 열심히 끝마쳐 놓았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나의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져왔다. 그 후배는 정리 방식과 방향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자신의 의견을

7) 위의 책, p.108.

8)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p.82.

9) 김원중 옮김, 앞의 책, p.237.

10) 한경구 외,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2006, p.77.

11) 김원중 옮김, 앞의 책, p.90.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왔다. 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한 후 내심 칭찬을 바랐던 나는 순간 크게 화를 내고 말았다. 기껏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정리를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놓았더니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을, 단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¹²⁾(「학이」) 나는 다른 이들에 하지 않는 귀찮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만함과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타인의 인정을 위해 나를 속이는 ‘빠르게 나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수신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신의 과정 중에 요구되는 덕목은 우직함과 꾸준함이다. 앞서 언급했듯 빠른 길이 아닌 앞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도중에 많은 유혹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드러나는 성공이 더욱 중요하며, 일단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나 자신을 우러러 볼 것이라는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수양을 거쳐 험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이 크고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¹³⁾(「태백」) 이러한 유혹들에 맞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것까지 성심을 다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단지 아집에 의해 만들어진 무의미한 허상에 지나지는 않는지 두렵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옳다고 선택한 길을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쉬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선택한 길이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가 ‘수신’의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였는지, 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이켜볼 일이라는 것이다.

12) 위의 책, pp.40-41.

13) 위의 책, p.154.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한 공자 역시 항상 스스로의 삶을 인으로 충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강조한 사실은 바로 “내가 인하고자 하기만 하면 인은 바로 다가온다”(「술이」)는 것이었다.¹⁴⁾부단한 정진만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신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무엇으로 정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지는 각자 다를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는 ‘빠르게 가는 아이’가 아닌 ‘앞으로 가는 아이’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자기를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불필요한 부담감 속에 나를 가두었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양함으로써 자기 수양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나가게 되었다. 더불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포기에 대한 유혹을 잘 다스려야 하며, 내가 선택한 ‘앞으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의 길보다 나은 것이라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처한 삶의 맥락이 다르기에, 그들의 선택 또한 각자의 최선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권하게 되어 ‘서’의 윤리를 저버릴 수가 있기에, 상호 존중 역시 자기 수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내가 바라는 수신의 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해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자공」)라고 했다.¹⁵⁾ 무엇이든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 역시 내가 선택한 길의 끝에서 돌아봤을 때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사람으로 서 있고 싶다. 빠르게 보다는 바르게 나아가는, 내가 바라는 수신의 도가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14) 위의 책, p.145.

15) 위의 책, p.177.

〈참고 문헌〉

김원중 옮김, 『논어』, 글항아리, 2015.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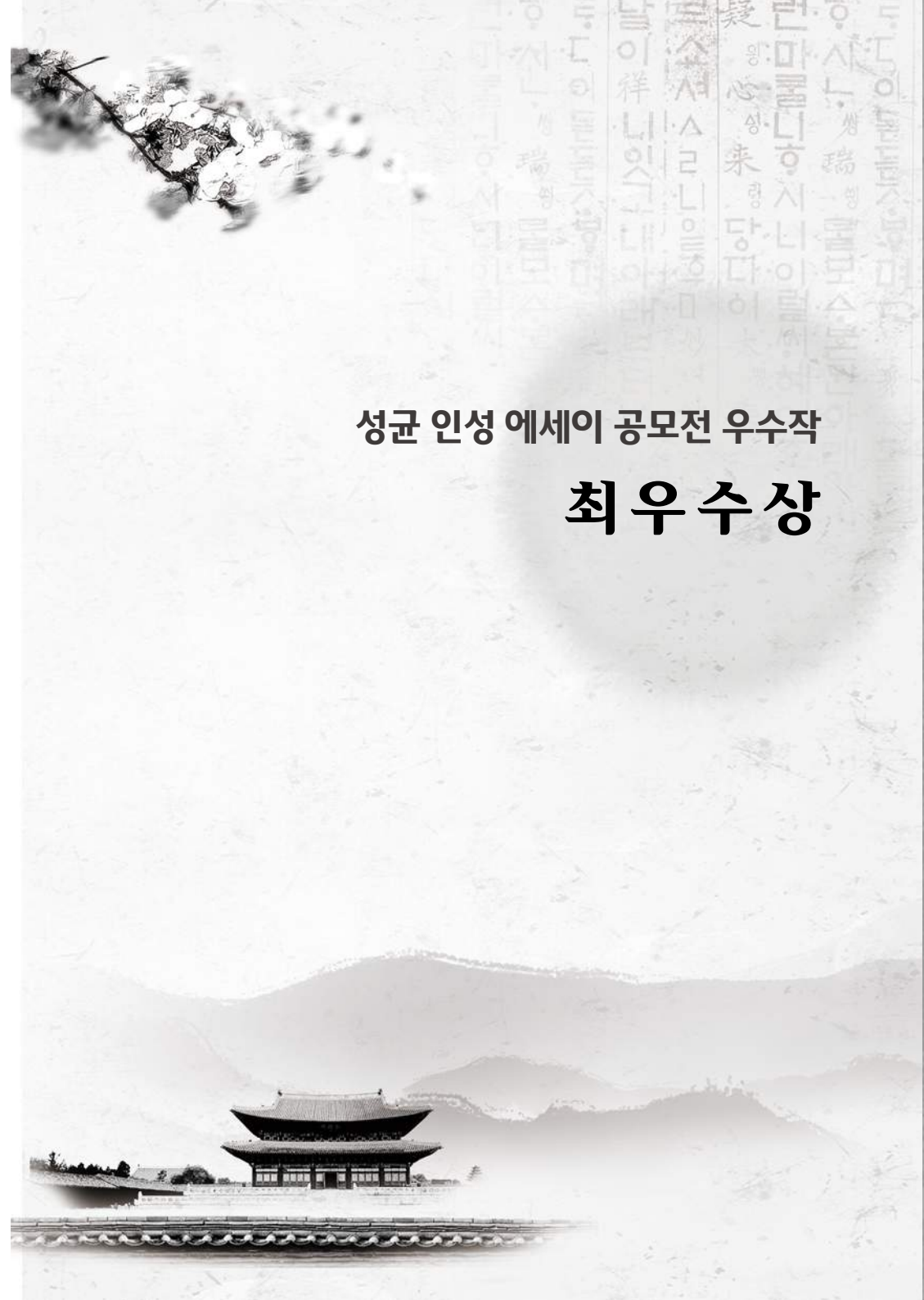
정수복 외, 『사회를 말하는 사회』, 북바이북, 2014.

한경구 외,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2006.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최우수상



수신, 내가 나아갈 길을 찾는다.

남예빈 | 수학과

21살.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었다.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며칠 전 내가 21살이라고 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뭘야, 언니인줄 알았는데 진짜 나이 많네요?” “야, 지금 선생님 진짜 꽃다운 나이거든? 애가 뭘 모르네.” “아니 그것보다, 21살이면 완전 어른이잖아요.” “음, 그렇지?” 그렇게 대화를 빠르게 마무리하며 다시 수학개념을 설명했다. 21살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는 언제 당도할지 알 수 없는 어른의 세계에 있는 나이였나 보다. 과외를 끝내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1학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독립하고 싶었다. 어른이 되기 무서웠지만 설 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능이 끝나고부터 계속 용돈벌이를 했다. 학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동아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보람차게 1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21살 이제는 알뜰없이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 것만 같다. 내년이면 정말 어른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젓한 대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매일 나빠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대학교 2학년은 제 2의 사춘기라는 말이 있다. 정말 나는 철없는 사춘기 여자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수신이라는 주제를 보고서도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쩌면 글을 쓰려고 논어와 관련된 책을 찾고 고민하면 어쩌면 내가 원하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복잡한 나의 고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며, 논어의 구절을 정리하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용기가 생겼다. 어쩌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신(修身), 한자는 닦을 ‘수’ 자에 몸 ‘신’ 자를 쓴다. 자신을 수양하고 가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신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덕목으로 대학의 다음 구절에 등장한다.

옛사람 중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 한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 한 이는 먼저 그 집안을 바로잡았고, 그 집안을 바로 잡으려 한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으려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참되게 했고, 그 뜻을 참되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앎을 투철히 했나니, 앎을 투철히 함은 사물을 철저히 밝힘에 달렸다. 『대학』¹⁾

그리고 이러한 수신은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수신(修身)’은 말하자면 자신의 인격적 바탕을 갖추어 간다는 뜻이요, 그 핵심 과제로 주어진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함(正心)’·‘뜻을 참되게 함

1) 이동환 역, 『원전과 뜻풀이로 읽는 유학 사상의 진수, 대학』, 현암사, 2008. p.43.

(誠意) · ‘앎을 투철히 함(致知)’ · ‘사물을 철저히 밝힘(格物)’ 이다.

격물치지 성의정심. 사물을 관찰하고 그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뜻을 참되게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한다. 나는 격물치지를 내가 가진 상황이나 고민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내가 가진 고민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면 참된 나를 찾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민을 나에게로 적용할 차례다. 무엇이 나 스스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부모님으로 부터의 독립, 남자친구와의 잘못된 관계 등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고민했다. 근데 정말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왜 내가 이렇게 후회와 고민이 많아졌을까’ 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사춘기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아져버린 나의 역할 때문인 것 같다. 전에는 좋은 친구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기댈 수 있는 친구도, 효를 다하는 딸과 성실한 제자도 될 수 있었다. 조금 신경 써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높았다. 근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 세상은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넓었다. 나와 다른 사람간의 관계도 너무나 다양했다. 그동안에는 세상에 나랑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가족 이렇게 3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팀플을 같이하는 친구, 술자리에서 2번 정도 보고 번호를 교환한 과 친구들, 같은 LC이고 한 학기 내내 같이 밥을 먹었지만 마음불편하고 어색한 사이,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더 가까운 남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나는 알지만 나를 알고 계신지 알 수 없는 교수님, 같이 사는 룸메이트, 몸이 멀어져버린 중고등학교 친구들 등. 내 직업은 단순히 친한 친구들에게 살가운 친구, 부모님께 좋은 딸, 착실한 학생에서 끝이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동아리 안에서 살가운 후배이면서 편안한 선배, 한 부서와 팀의 리더, 좋은 학점, 안 친한데 항상 응원해 주어야 하는

과 친구들, 예의바르고 잘 가르치는 과외선생님,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이 아닌 부모님의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딸. 나도 모르게 내 직책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 이것이 내가 힘들어 하는 모든 고민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안연」)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묻는 경공에게 공자가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각자가 제 위치에서 본분을 지킬 줄만 알아도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각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정의 평화도 나라의 평화도 깨져버린다.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정명은 각자의 자울을 존중하면서 관계 속의 조화를 도모해야 완성된다. 무반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 그룹이 각기 고유한 음색으로 섬세한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가 모여 조화로운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과 같다. (중략) 임금이 집에 와서도 임금 노릇을 하려하고, 자식이 밖에 나가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요구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른 역할을 소화하지 못해 가정이든 사회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²⁾ 나는 생각만 많았지 정작 보면 어느 것도 본분에 온전히 힘쓰지 못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역할을 만들어 가는 주변인과 협력할 줄 몰랐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갑자기 내 앞에 놓인 많은 역할들을 충돌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자공이 존신토록 행할 만한 것을 물었다.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恕)이리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2)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p.145.

(「위령공」)³⁾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모든 고민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남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서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배려가 가장 큰 가치라고 가르침 받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이 있을 때 마다 되새겼다. 그 말을 실천하면 모든 관계가 미끄러지듯 부드러웠다. 이는 서에서 말하는 배려의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대학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경을 거스르는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을까? 내가 대학교에 올라온 후 서를 실천하는 마음이 사라져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친구를 따라 동아리 선배들과의 술자리에 갔다. 무엇이라도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주절주절 말하다가 방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날 밤은 잠드는 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다. 혹시 내가 아까 한 말이 말실수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표현이나 표정은 안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날 뿐만이 아니었다. 배려하지 못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종일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날이 정말 많았다. 매번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번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로, 좀 더 기분을 생각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하지만 매일 그렇게 반성하고 다짐해도 방에 돌아와서 후회하곤 한다. 스스로 만든 그날의 미션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처음엔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약속에서는 휴대전화 꺼내놓지 않기, 시계보지 않기 등등을 생각해 가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예전처럼 만남을 통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잊은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지난 방학 때는 『배려』, 『경청』 등 배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고, 상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만 같은데 착각이었나 싶었다. 정말 내 생각대로 배려하는 DNA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사라져 버린 걸까? 주변 지인들 중에는 먼저 밝게 인사를 하고 주변을 걱정하는 A군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그 사람을 경계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배려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내 앞에서는 신나게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이 배려하고 따스한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들기도 했다. 진심이 없는 서는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지는커녕 마음을 닫게 만든다. 어쩌면 그동안에 내가 하던 노력에는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던 것 같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서를 위한 모든 행동과 고민은 전부 단순한 보여주고 싶은 쇼일 뿐이었다.

“인자는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 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이르게 해준다. 자기와 가까운 데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⁴⁾(「웅야」)

내가 그동안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행동들이 진심으로 남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을까?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같이 말하면서 그 사람이 편하길 바라기보다 나는 편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강요하고 싶었다. 약속하나하나에도 그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보다는 그 만남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어떻게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인정하고

3) 위의 책, p.135.

4) 위의 책, p.34.

싶지 않지만 자꾸만 약속시간에 조금씩 늦는 내 모습은 결단코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은 분명 아니었다. 그 순간의 나는 내가 가진 시간이 더 소중했다. 배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생각과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만나 공자께서 배척하는 군자인척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 척 한다고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레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렸을 적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이 잘되길 빌고 바랬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친친(親親)에서 그치는 서이다. 친구들과 매일 함께 하는 삶 속에서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나만의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를 포함한 세상은 더 넓어 졌고 내가 만들어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좀 더 풍성해졌다. 이제는 친친을 넘어서 애인(愛人)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배려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감을 얻기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 진심된 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서 나는 수신에서 시작해서 나를 가꾸려고 내가 만난 문제 상황과 추구하는 가치를 고민하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정돈되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사실 제 2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에게 고민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다.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여기서는 단지 인간관계에 대해 나의 고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고민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실마리만 잡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기고 신이 나는 까닭은 나에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수신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민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항상 결은 포기, 회피 그리고 우울이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막막하던 수신을 책에 나온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니 내가 노력하고 배운다면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애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커녕 수(修)에서만 알짱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우울해 하며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내가 바뀌고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계속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격물치지로 돌아가 수신을 반복할 것이다. 오늘날 한 것처럼 컴퓨터를 켜고 한쪽에는 내 앞에 논어가 있듯 날 일으켜줄 책을 놓고 수학문제로 굳은 머리를 굴려가며 글을 쓰겠다. 먼저 지금부터는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며 남은 21살을 보내야겠다.

〈참고문헌〉

이동환 역, 『원전과 뜻풀이로 읽는 유학사상의 진수, 대학』, 현암사, 2008.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나다운 ‘나’ 를 만들기 위한 『논어』 한 스푼

이지현 | 경제학과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마녀가 마법의 약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온다. 개구리도 넣고, 뱀도 넣고, 이상한 연기가 나는 약도 넣는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주인공을 해치는 약을 만들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약을 만든다. 나도 ‘수신’ 을 위한 묘약을 만드는 중인데, 여기엔 『논어』가 한 스푼 들어간다.

“당신은 100일 연속으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위위, 무리하진 마세요. 분명히 당신에겐 그럴 시간도 없을 테니.”

왠지 사람들을 발끈하도록 만드는 앞의 표현은 ‘100 happy days’ 라는 릴레이에서 내세우는 말이다.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 릴레이의 목표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100일 동안,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을 표현하면 된다. 사진을 찍고 그것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등등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릴레이에 참여한다.

나는 일기쓰기를 시작했다. 평소에도 일기를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페이지가 나의 걱정들에 얼룩져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릴레이를 발견하고서는 ‘딱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행복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한 오늘의 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행복한, 보다 나은 내가 되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00 happy days 릴레이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가는 나의 수신 묘약. 이 글에서는 앞으로 내가 진짜 나를 이루기 위한 묘약에 어떤 것들을 넣는지 살펴볼 것이다.

100 Happy Days

“100 happy days” day - 2

이 순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날 행복하게 하는 외부의 요소에만 의존하게 될 거야.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난 환경에 집착하고, 환경에 묶인 사람이 되어버릴 거야.

이 릴레이를 시작한 둘째 날에 일기장에 썼던 말이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에 빠지기보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던 다짐이다. 내가 나와 친해지기 위한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00 happy days” day - 22

나는 엄마, 아빠한테 좋은 딸이 아닌 것 같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에 비해 나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틱틱 거리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럼에도,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꿈.

외동딸로 자라서인지, 나에게서는 부모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날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재잘재잘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온 날, 문득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었던 일기다.

열여덟,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며칠 내에 돌아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반 친구들한테 헌혈증을 부탁하던 내 친구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짧지만 내 전부인 21년의 세월동안 그보다 더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모습을 본 후 한동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 또한 너무나도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 아빠도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아빠도 언제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거구나. 평소에도 아빠가 흡연자라서 걱정 했는데, 한 동안 아빠가 진짜 돌아가실까봐 울었다. 그런데 우울해하는 나를 보고 “왜 그래?” 라고 여쭙보시는 아빠한테 이유를 말해드릴 수는 없었다. 담배 끊으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아빠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도 어릴 때는 몇 번 엄마 따라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자라고 난 후부터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괜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꺼내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괜히 앞서서 걱정하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왔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은미하게 간언해야 한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또한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더욱 노력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¹⁾ (「이인」)

울던 그 때에 이 말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해서 부모님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지만, 부모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을 예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날 큰 맘 먹고 아빠께 “나 결혼하면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기들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줘. 기타도 쳐주고 그러려면 아빠 오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었다. 직접적으로 담배 끊으라는 이야기는 못했지만, 아빠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얼마간 금연을 하셨다. 언젠가는 아빠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이인」을 통해 부모님께 간언할 수 있는 용기를 나의 수신 묘약에 한 스푼 추가한다.

“100 happy days” day - 23

작년에 동아리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동기들에게 좋아보였는지, 올해는 하이클럽에서 부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을 알고 있기에 한 단체의 대표 자리가 갖는 책임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일반 동아리가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국제처에 소속된, 교환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돕는 학생 단체이기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 어렵듯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작년에는 하이클럽 회의가 있는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저 그런 기분이다. 회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하이클럽에 소속돼 있을 뿐, 열정은 잃어버린 지 오래. 새로운 열정은 없고 지루함과 권태만이 남았다.

‘왜 내가 이 동아리에 애정을 쏟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써주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난다.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나쁜 마음까지도 든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

23일 동안 잘 해오다가, 처음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다. 그런데 1학기에 실천리더십 수업을 들으며 배웠다. 보통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말단 사원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부터 바꾼다고.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동아리에도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알아치워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1)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p.60.

하는 게 맞는데.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긴다.”²⁾ (『위령공』)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하이클럽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 했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다. “남 탓 하지 마!” 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데 말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이 말을 보게 된 나는, 한동안 많이 울었다. 내 행복의 기준을 외부환경에서 찾지 말자고 다짐해놓고서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 나도 행복하지 않다며, 환경에 휘둘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힘들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미성숙한 나의 생각이었다. 내가 한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동아리 친구들을 쉽게 비난해버리는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나는 소인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소인이야.’ 라는 생각만 하고 다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쨌거나 내가 동아리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내가 이 동아리를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있었던 행사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부터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사 후 피드백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야기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 내려놓는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논어에서 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이 이 부분이고, 이를 통해 하이클럽에서

제대로 ‘수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령공」에서 발견한, 나부터 살펴보는 군자의 태도도 내 수신 요약에 한 스푼 추가한다.

“100 happy days” day - 59

배운 자만이 자유롭다. 인생학교가 한국에 생긴다니!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며, 내 생각의 깊이를 키우는 건 언제나 멋진 일이다. 독일 속담 중에 ‘네 자신을 찬 물에 빠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라는 말이 있다고. 나를 일부러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내 한계를 느껴보고, 그것에 부딪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지금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기. 내가 모든 언어,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항상 배움에 굶주려 하기.

동아리에서 좋은 인생 친구를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있을 때면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언니 두 명 모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나와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다.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깊다. 이 언니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기분이 들어 부끄러워지곤 한다.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언니들이 말했던 소설이나 시를 찾아보곤 한다. 그것들은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일 때도 있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짧은 누군가의 글일 때도 있고, 아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일 때도 있다.

“공부는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갈망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³⁾ (『태백』)

언니들과 있기만 하면, 『논어』에서 말한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2) 같은책, p.90.

3) 같은 책, p.294.

갈망하는' 태도를 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언니들의 대화에 끼고 싶어서, 내 스스로도 사고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갈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것 같다. 배우고 배워도, 점점 더 배울 것들이 늘어만 가는 기분이다. 그래도 부지런히 배워서 언니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태백」에서 말하는 배움을 갈망하는 태도도 보다 나은 내 미래를 위한 수신 묘약에 한 스푼 추가한다.

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단군신화에 나오는,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웅녀. 내가 아직은 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100일 동안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보거나 느낀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꿈에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100일이 다 지나지 않아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이전에는 진리라 믿던 것들을 의심해보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내가 아직은 너무 낮설지만 설레기도 한다. 그저 그런 어른이 되어버리는 건 싫다. 몸만 컸지, 몸 안에 들어있는 건 여섯 살 어린 아이인 건 정말 싫다. 물론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싶다.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또 나의 묘약에 좋은 것만 골라서 넣고 싶다. 내 수신 묘약에 점점 더 많은 재료들을 넣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지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미래의 더 나답고, 더 성숙한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그 시절, 아버지가 서성이던 우리 집

정재한 | 경영학과

“여보세요, 도대체 지금 어딘데?”

어머니의 화가 조금 섞인 다급한 목소리, 난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이어서 캄캄하고 조그만 방안으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눈두덩마저 콕콕 쪼아대는 강렬한 형광등 불빛, 갑작스레 짜증이 확 몰려오기 시작한다. 한숨을 푹 내쉬며 이불을 던지듯 제치고서는 가만히 앉아 마저 잠이 깨기를 기다린다.

‘보나마나 또 아빠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어젖혔다. 나보다 두 학년 어린, 이제 갓 고등학교에 들어간 동생이 먼저 나와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 아빠가?”

난 졸린 눈을 비비적거리며 아직 전화기를 들고 있는 어머니께 물었다.

“거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게.”

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셨다.

“뭘데, 아빠냐고?”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로 되물었다.

“아빠가 지금 많이 취해서 집을 못 찾겠대. 데리러 가야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셨다.

“이 새벽에 엄마가 나가긴 어딜 나가! 놔둬라, 내 나가서 아빠 델꼬 올게.”

“그럴래?”

난 더 이상 대답 않고 아무 말 없이 인상을 살짝 찌푸린 채 잠깐 밖에 입고 나갈 체육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난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다. 단지 새벽 늦게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은 아니었다. 그건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말이다. 시간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 약 8개월 전인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평소에 매우 바쁘게 일하고 다니시던 나머지 일주일에 두, 세 번 많아봤자 서너 번 정도만 집에서 주무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버지가 웬일로 어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드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어머니의 눈가가 퉁퉁 부어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가 한 거래처 사람의 꼬드김에 넘어가 본업이 아닌 다른 일에 손을 대고난 후로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었는데 난 또 그런 것이라니 생각하며 곁에 앉아서 말없이 몇 개 안남은 과일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내가 과일을 먹는 내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으셨다. 난 마지막 남은 복숭아 한 조각을 입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또 뭘 일인데? 싸웠나?”

이어서 울음을 삼킨 목소리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답변,

“아빠가 하던 사업……, 망했어. 너 내일 학교 가서 책하고 다 가져와. 서울에 있는 이모네로 가게.”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어.”

난 아무렇지도 않게 알겠다는 듯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서는 씻으러 가는 척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다. 도무지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복숭아 한 조각이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입에 물고 있던 복숭아를 변기통에 버려 물을 내린 뒤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고 소리죽여 우는 것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말리던 사업이었는데 기어코는 어머니 몰래 돈을 장만하여 사업을 시작하시더니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그 덕에 얻은 것이라곤 어머니의 속병뿐이었다. 그 때만큼 아버지가 미울 수가 없었다.

이틀 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학교로 가시더니 나의 담임선생님에게 나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서는 그 길로 집을 나가셨다.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원래 서울에 있는 이모 댁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생각을 바꾸어 가지 않기로 하였다. 어머니가 우리형제의 학업을 위해서 부득불 대구에 남아있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 시시때때로 사채업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지만 그 때마다 작은외삼촌이 도움을 주시곤 했다. 물론 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느라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볼 수 있던 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서진 초인종과 지쳐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붙어 있던 빨간 딱지들이 전부였다.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지도 6개월, 우리 집은 경매에 들어갔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월세를 놓은 집으로 쫓기듯이 이사를 갔다. 그때 즈음하여 집을 나가셨던 아버지도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 번 마시면 취하도록 마시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어디 있데?”

난 체육복을 입으며 어머니께 물었다.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그 집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 한 번

가볼래?”

“히야, 같이 가자.”

내가 옷을 입고 나서려하자 내 동생이 따라 나오며 말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가끔가다 들려오는 길거리의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과 미쳐 소화하지 못한 것들을 계우는 소리가 귀에 매우 거슬렸다. 나와 동생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10여분 정도를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이사하기 전 우리가 살던 집에 다다르자 동생이 소리쳤다.

“히야, 아빠 저 있네. 아빠!”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술에 취한 나머지 아직도 그 집을 우리가 사는 집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이었을까? 아버지는 그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며 서성이던 중이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10여년이 넘도록 장사를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장만한 집이었다. 드디어 우리가족이 소유하는 집, 우리가족만의 집이 생긴 것이었다. 소박하게나마 뒤뜰에 대추나무도 키웠었다. 그 집을 장만했을 당시 내 나이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우리 가족은 처음 그 집으로 들어서며,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도 종종 이 집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살아보자고 입을 모아서 말하곤 했다. 그만큼 우리가족에겐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집이었다. 어쩐지 계속 그 집을 서성이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찢어져 오며 한편으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다.

“어어, 우리 아들들! 여가 우리 집 아이가? 아빠가 고마 술에 취해갖고 우리 집이 어딘지 잊아뻘다.”

이미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였다.

“으이그, 여 우리 집 아이다. 빨리 집에 가자.”

동생이 아버지의 한쪽 손을 잡고서는 앞장섰다. 나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따라나섰다. 아버지는 작지만 굵고 두툼한 그 못생긴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래, 가자! 우리 아들들하고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양 손에 두 아들의 손을 한 쪽씩 잡고서는 팔을 앞뒤로 흔들거리며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는 뭘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 내뱉었고 동생은 그런 아버지의 말끝마다

“그래, 그래”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난 그저 아버지 손을 잡은 채 한숨만 쉬며 속으로 이런 아버지를 탓하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절반 정도쯤 왔을 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잡고 있던 내 손을 더욱 꼭 잡으시며 말하셨다.

“재한아, 이 아빠는 말이야, 절대 안 쓰러진다. 자꾸 주변에서 말이야 이 아빠를 넘어뜨릴라카는데 아빠는 절대 안 쓰러진다 이기야! 그러니까 우리 재한이도 세한이도 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알았제? 이 아빠는 절대 안 쓰러져”

아버지가 혀가 꼬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힘겹게 뱉어내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듣고 있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까지 한껏 차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난 애써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려서 걸었다.

“이 아빠는 절대 안 쓰러져……. 이 아빠는…….”

아버지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됐다, 빨리 집에나 가자.”

동생이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이끌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지나쳐 바로 캄캄한 방안으로 다시 들어가 이불을 얼굴 끝까지 끌어올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앞에서 흥얼거리며 춤을 추셨고 동생은 그 옆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데려온 얘기를 하는 듯

했다. 그 새벽에 동네에서 불이 켜진 채 방안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이 없기는 쉽다.”¹⁾(『헌문』)

고등학교 시절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김을 몸소 체험했다. 물론 혹자는 고등학생이 뭘 돈이 필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은근히 사소한 불편함이 생긴다. 당장에는 학비가 문제였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이었던 터라 학비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비쌌기에 부담이 되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학비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날 부탁하시고 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교무실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당분간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분에겐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좀 가난하면 어때, 자기만 당당하면 됐지’ 식의 사고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이 쉬웠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막상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따라 매점이나 학교 밖으로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 돈을 써야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눈치가 보였기에 웬만해선 교실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았다. 같이 급식을 먹고 나서도 난 서둘러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물론 아버지를 원망스러워 했던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고 동생도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것도 잠시,

1)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491.

우리형제들을 위해서였는지 될 수 있으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우리 앞에서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난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다. 술에 취한 채 우리 집이었던 그곳을 맴돌며 서성이는 아버지를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신을 책망하기를 두텁게 하고, 남을 책망하기를 가볍게 한다면 원망을 멀리할 것이다.”²⁾(「위공령」)

논어를 읽으며 훌륭하고 좋은 문구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온 짧고도 길었던 지난 몇 년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든 문구이다. ‘자신을 책망하기를 두텁게 하고, 남을 책망하기를 가볍게 한다면 원망을 멀리할 것이다’라는 뜻의 이 문구는 남들에게는 그저 당연하면서도 좋은 말 중 하나에 불과할지 모른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이전의 나 역시 이 글을 봤다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어찌 보면 논어의 문구 중에서 내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뒤 모든 잘못의 원인은 아버지 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러자 자연히 원망의 대상은 아버지에게로만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잘못이었던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난 초등학생시절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바둑을 전공하면서 유학생활동을 했기에 내 또래의 아이들보다 수배로 돈이 많이 들었다. 그 때는 어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집안에 경제적으로 무리를 준 것 역시 나였다. 그렇다고 끝까지 바둑에 매진하여 성공한 것도 아니었다. 도중에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채 늦은 나이에 학교공부로 돌아선 것이다. 비록 그런 못난 자식이었지만, 열다섯 살에 알파벳조차도 제대로 쓰고 외울 줄 몰라 학원에서 못 가르치겠다는

소리를 들으며 쫓겨나오듯이 나온 나를 어떡해서든 공부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혹여나 아버지가 그 생각에 돈 욕심이 생겨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항상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만 들어오던 아버지였다. 어찌면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들은 단순한 아버지의 물욕이 아니라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을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 역시 공자가 말한 수신(修身)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덕목인 충(忠)과 서(恕)중에서 서(恕)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자가 말한 서(恕)란 내 몸으로부터 미루어 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에서 나로부터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에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험생 시절의 그날 새벽, 난 그 어떤 수험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공자가 말한 수신(修身)의 길에 한 발짝 더 내디딘 때가 아닐까.

난 아직도 술에 취한 아버지를 데리러 우리의 집이었던 그 곳을 찾아간 그 날의 새벽을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게 힘겹게 뱉어내던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잊지 않는다. 아니,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날 새벽,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얼굴 끝까지 올린 그 시절의 나는 이불로 입을 틀어막은 채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다.

‘아빠 미안해, 나 열심히 할게!’

난 그제야 속 후련히 잠들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558.

2) 앞의 책, p. 558.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우 수 상

• 우 수 상

수신(修身) : 나의 자아를 찾아

김인영 | 교육학과

제 1장. 서론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대학(大學)은 군자의 올바른 행실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해 논하는 3강령과 8조목을 담고 있는데, 이 8조목 중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그대로 풀이하면 심신을 수양하여(수신) 가정(집단)을 돌보고(제가), 나라를 다스리며(치국) 천하를 평정(평천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수신, 제가, 치국 그리고 평천하는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일컬어진다. 심신을 수양해야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가정을 돌본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린 후에야 비로소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첫 번째인 수신은 가장 기초적이며 모든 다스림에 우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유교 경전 중 논어(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 2장. 나의, 나에 의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수신’

수신이 군자의 올바른 행실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8조목 중 하나인 만큼 수신은 일차적으로 군자에 가까워지기 위한 몸과 마음의 수양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수신은 나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공모전의 주제는 <수신(修身): 참된 나 이루기>이다. 수신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정의와 묘사들을 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수신이란 곧 참된 나를 이룬다는 것은 다소 색다른 정의였다. 우리말에서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참된 나를 찾는 것, 즉 수신이란 나의 심신을 진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꾸어 군자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함은 당연하다.

나는 이제까지 덕(德)과는 거리가 먼 소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논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인의예지 중 그 어떤 덕목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인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덕을 실천하는 군자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수신을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협소하지만 나에게 잘 맞도록 재단하여 쓰고자 한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지금 논하는 수신은 기나긴 천릿길을 가는 출발선에서 내가 비교적 쉽게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다. 그야말로 나의, 나에 의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수신이라 할 수 있다.

나에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서툴며, 가장 수양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주저 없이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에겐 유난히 인간관계에 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맞춤형 수신을 인간관계에 집중하려고 한다.

제 3장. 후회와 반성: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여름, 재수 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이전에 겪은 대입 실패로 인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나의 외모에 관해서도 그랬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전보다 살이 급격하게 찌고 피부도 나빠졌기 때문이다. 몸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나는 내 첫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나는 항상 우울했고, 표정도 어두웠다.

그렇게 재수 학원 생활을 보내던 중, 누군가가 나를 향해 묘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다. 그 따가운 시선은 우리 반 교실보다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 주로 감지되었다.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물증도 없이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나는 점점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처음 내가 시선을 눈치 챌 후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범인은 학원 건물의 아래층을 쓰는 다른 반 여자 아이였다. 왜 나를 쳐다보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애의 반에는 고등학생 시절 나와 사이가 나빴던 동창생이 한 명 있었다. 게다가 그 애와 내 동창생은 사이가 좋은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동창생으로부터 나에 대한 험담을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가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나는 시선이 느껴질 때면 평소처럼 모르는 척하기도 했지만, 가끔씩 오기를 부려 덩달아 노력하는 눈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면 물론 그 애는 내 눈을 황급히 피했다.

그 후 가을이 지나고 수능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재수 학원에는 학생과 선생님 누구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즈음엔 그 애가 나를 쳐다보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자연스럽게 나도 그 애에 대해

있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다시 본 것은 수능 시험 후 재수 학원 담임선생님께 정시 상담을 받기 위해 학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그 애를 보고는 나를 쳐다봤던 이유에 대해 물어볼까 말까, 10층에 서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수백 번을 더 고민했다. 그렇게 말없이 단 둘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어차피 그 애가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다. 있잖아. 예전에 나 왜 쳐다봤어? 그 애는 잠시 당황해하다가 멧쩍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OO이(나의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생)가 너 XX(아이돌 그룹) 팬이라고 했는데, 나도 개네 팬이라서... 그래서 말 걸어보려고 계속 고민하다 그냥 관뒀어.”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혼하디혼한 표현이지만, 그대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아니꼬워서 쳐다보는 게 분명하다고, 멋대로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까? 그 애가 나에게 준 시선은 사실 호의에 찬 시선이었는데!

선생님과의 정시 상담을 끝내고, 조금 낮이 나간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속상함에 어쩔 줄을 몰랐다. 우선 생사람을 잡은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멋대로 오해해서 같이 노력하는 식으로 유치하게 대응한 것이 부끄러웠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다가갔더라면 힘든 재수 생활에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게 속상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당시의 나도 금방 깨달을 만큼 단순했다. 그건 내가 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스스로 내 첫인상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성격이나 외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얼굴은 특별히 예쁘지도 않지만 특별히 모난 데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구나 첫인상이나 남에게 호감을 주는 건 외모보다 표정이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나는 특히나 마음이 표정으로 즉시 드러나는 편이어서, 내 첫인상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터였다. 즉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알지 못해서 남을 오해하고, 결국엔 소중한 인간관계를 놓치고 만 것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마음이 맞는 친구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제 4장. 너 자신을 알아

“오직 인자(仁者)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¹⁾(『이인』)

공자께서 『논어』 「이인」 편에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년 전의 나를 겨냥한 듯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인(仁)은 유교의 근본 덕목이자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교시인 인의예지(仁義禮智) 중 하나로, 사랑이나 마음의 본질 혹은 도덕성이다. 인자(仁者)는 인(仁)을 이룬 사람이므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일컫는다. 즉 위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타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불인자(不仁者)는 타인의 진짜 모습을 보는 대신, 자신의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불인자는 바로 2년 전의 나이다. 그런데 내가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혀 비뚤게 바라본 것은 비단 타인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비뚤게 바라보아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수신이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즉 ‘나의 수신’,

1)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p.157.

즉 심신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가꾸는 것은 곧 나를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줄이면, 자아 정체성 찾기이다!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해야만 낯것의 나를 그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나를 알고 받아들여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목표인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2) (「이인」)

역시 「이인」 편에 등장한 말씀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큼이나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로 사람이 모인다는 의미이다. 수신을 통해 자신을 알고 나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덕을 갖추면 반드시 남이 알아준다고 하니, 우선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수신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내 자아 정체성을 찾으면 인간관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꼭 나의 수신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인 것만 같지 않은가?

제 5장. 내 자아 정체성을 찾는 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곧 수신이며, 인간관계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아를 찾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 자아를 찾는다고 하면 대단히 막연하고 높은 이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과,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1) 나에게 정직하기

“사람이 사는 바탕은 정직함이다. 속이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용야」)

『논어』 「용야」 편의 말씀이다. 사람이 ‘잘’ 살려면 정직해야만 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려 사리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또 이 ‘잘’ 산다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며 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분명한 자아를 찾고 타인과 잘 지낸다는 목표를 가진 이상 정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살다보면 내 자신을 속이게 될 때가 많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향을 가졌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사실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때 그 때의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나를 속이고 만다. 이런 자기기만이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긴다. 뻔히 아는 것을 어느 순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 더 신중하고 정직할 것이다.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귀 기울여 듣겠다.

2)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자아 정체성을 찾고 싶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니,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 일리 없는 말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흔히 몸 건강이 마음에 좌우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쁜 몸 상태 역시 마음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 높은 경지에 오른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고통과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

2) 같은 책, pp.179-180.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공포가 낳는 불안이나 편협한 생각,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더 크다. 2년 전의 나 역시 아픈 몸이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에 한 몫을 했다. 건강하지 않아서 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야말로 몸이 병들면 마음도 함께 병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를 흐림 없이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결론

수신이란 무엇인가? 진실하고 올바른 나를 향한 몸과 마음의 수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나의, 나에게 의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수신이 또 있다. 나는 이 맞춤형 수신을 2년 전, 나 자신을 몰라서 일어난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것. 즉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내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仁)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른다.(「술이」)”

공자께서는 「논어」의 술이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신도 인(仁)과 다를 바 없이 내 마음에 달렸다. 수신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진심으로 원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실패는 연습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겠다. 나의 수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년 후, 그리고 10년 후 나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된 내 모습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 우 수 상

끊임없는 방황, 끊임없는 수신(修身) 그리고 끊임없는 깨달음

배한경 | 글로벌경제학과

들어가며

평소 나는 내 자신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가끔은 내가 요즘 너무 재미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이 2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깊게 고민해보면 결코 평범한 생활을 보내왔다고 할 수 없고, 내 주위 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나’가 있고, 앞으로 겪을 일들을 통해 또 다른 ‘나’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수신(修身)의 과정을 겪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겪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 방황, 그리고 깨달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첫 번째 방황은 약 16년 전으로 돌아간 초등학교 3학년 때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의 ‘나’ 와 그때의 ‘나’ 가 너무나도 달라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내 이름은 배한경이야!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은 여기 칠판 앞으로 나와! 만약 내가 이기게 되면 내 말을 들어야해!”

초등학교 3학년의 ‘나’ 는 학년이 올라가고 첫날 아침 선생님께서 안계신 틈을 타 당당하게 칠판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 당시 다른 학우들보다 덩치가 상대적으로 컸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나는 ‘권력’ 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에서 가장 힘이 센 학생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야 배한경! 네가 뭔데 앞에서 그러고 있는건데? 나 오대영이거든? 울기 싫으면 그냥 들어오지?”

그 당시 나랑 덩치가 비슷했던 대영이는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오랫동안 싸웠다.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고, 우리는 쉬는 시간에 공동 1등이라고 합의를 봤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하나가 아닌 둘이라서 그랬는지 우리는 이반 저반을 다니면서 많은 학우들을 괴롭혔다. 실내화를 창밖에 던지고, 공을 뺏고, 따지는 애가 있으면 힘으로 굴복시켰다.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 소식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지고, 교장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교장실에서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때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간신히 퇴학을 면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어머니랑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 멀고도 무섭다고 생각했던 내가 기억난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이 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아무리 철이 없었어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었는지 안절부절 못했던 내가 떠오른다. 밤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나를

불러서 앞에 앉힌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한경아. 한경이보다 더 센 친구가 한경이를 똑같이 그렇게 괴롭히면 기분이 어떻겠니? 아주 많이 슬프고 화가 날거야. 그치? 방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렴”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때리신 적이 없다. 그 날 밤 솔직하게 말하면 난 다른 친구들의 마음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무섭고, 새로운 학교로 가기 싫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다. 깨달음은 전혀 얻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난 학교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냈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당시의 ‘나’ 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 소식은 바로 아버지의 영국 해외 발령이었다. 미국 말고 다른 외국은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영국이라는 곳은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었다. 약 두 달 만에 우리 가족은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난 동양인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영국이라는 낯선 곳이 너무나도 두려웠었다.

우리 가족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나는 두려움을 안고 영국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 나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영어를 전혀 몰랐으나, 어려서 그랬는지 언어는 금방 익혀 나갔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인종차별이었다. 아직도 영국은 인종차별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학교는 동양인이 딱 두 명밖에 없었기에 인종차별이 훨씬 심했었던 것 같다. 일단 애들은 나에게 항상 마늘 냄새가 난다고 놀렸으며, 내 옆에 앉게 되면 매번 선생님한테 불만을 토로했었다. 사춘기가 슬슬 올 시기여서 그랬는지 난 그 나이에도 비참함이 무엇인지 느꼈었던 것 같다. 쉬는 시간에는 내 도시락을 몰래 쓰레기통에 넣어놨으며, 운동 시간에는 내가 잘하는 축구를 애당초 시켜주지도 않았다.

자존심이 세고 눈물이 없었던 나는 어느 날 밤 방에서 하루 종일 서럽게 울었다. 정말 아직도 신기한건 바로 그 날 밤, 나는 울면서 한국에서 괴롭혔던 친구들을 한명 한명씩 떠올렸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속으로 계속 ‘미안해, 미안해’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

하게 기억난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¹⁾ (「위령공」)

한국에 있을 당시 어머니께서 밤에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과 같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마라’, 즉, 그때의 ‘나’에게 대입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라고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단지 학교를 옮기기 싫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의식적으로 조용하게 지냈었던 철없던 ‘나’는 영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가 진심으로 과거의 행동들을 반성한 그즈음해서 나는 영국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했으며, 두 세 달이 지난 이후에는 다행히 인종차별 문제를 거의 겪지 않았다. 아마도 내면에서의 깨달음이 무의식적으로 좋은 기운을 내뿜어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두 번째 방황, 그리고 깨달음

5년의 영국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치열하다는 대치동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형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은 대치동이라는 곳을 선택했다고 나중에 되어서야 말씀해주셨다. 애당초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나는 ‘휘문중’이라는 곳을 진학하게 되었고 입학 첫날부터 학우들과 축구만 열심히 하게 되었다. 나는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모두 축구에만 썼었다. 영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 시간에는 전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수

학, 국사, 국어, 과학 등등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5년이라는 공백이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컸었으며, 이로 인해 나는 점점 학업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 생애 첫 중간고사를 치루고 나는 충격적인 점수가 적혀 있는 성적표를 받았다. 전교 석차를 보고 살짝 놀랐으나, 애당초 관심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성적이 전교권 안에 항상 들고 반 1등을 했던 알미운 회장이 내 성적표를 몰래 뺏고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내뱉은 말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영국에서 살아 와서 영어는 100점 받았네. 근데 뭐 이진 당연한 거니깐, 100점 못 받으면 이상한거지. 그런데 다른 과목들 점수 좀 봐, 대박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지? 짝어도 이거보단 잘 받겠다.”

그 학우는 내 성적표를 들고 아무 잘못이 없었던 나를 있는 대로 조롱하고 비웃었다. 싸우기 싫었던 나는, “야 그래도 영어 하나만큼은 100점 받았잖아”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이 상황을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 날 나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도 많이 났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결과 기말고사를 정말 잘 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기에 나는 축구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학우들보다 일찍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과서를 말 그대로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점수를 받았다. 기말고사만 두고 본다면 반 2등을 했으며, 전교 석차는 28등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성적표를 반회장 책상에 던지면서, “야, 다시 한 번 돌려봐. 아 그리고 고맙다. 너가 나 놀린 덕분에 살면서 이런 점수도 받아보게 되었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내 성적에 기겁을 했었으며, 난 뭔지 모를 통쾌함을 느꼈었던 것 같다.

그 이후 나는 뚜렷한 목표 없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 받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만 했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치동에서 남들은 항상 서로의 성적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고등

1)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568.

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어느새 부모님의 기대도 처음과 다르게 높아져 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공부만 하고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로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도 알지 못했다. 목표 의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나의 성적은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고3이라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은 매우 당황하셨다. 예상대로 나는 수능을 망쳤었고 자연스럽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수를 시작하기 앞서 나는 부모님께 조용한 곳에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템플 스테이를 신청해주셨다. 조용한 절에서 나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였는데,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²⁾(「현문」)

나는 중학교 때의 사건 이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해왔었던 것이다. 목표 없이 단순히 점수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쳐 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조차 없었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들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 ‘경제’라는 과목이 가장 흥미롭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학과 관련된 진로를 인터넷에서 모두 찾아보았으며 ‘금융’이라는 대략적인 목표를 세웠다.

재수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들었으며, 그간의 짧은 공백도 대단히 크게 느껴졌기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나름의 뚜렷한 목표가 존재했기에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비록 나는 학문의 목표를 공자의 목표인 인(仁)과 다르게 세웠으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내가 대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끊임없는 방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앞에서 언급한 두 방향들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방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나’가 존재할 수 있게끔 가장 큰 역할을 한 방향들이지 모른다.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깊게 생각해보니,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그 방향들이 지금의 ‘나’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아직 나는 26살밖에 안되었고, 앞으로도 셀 수 없는 방향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향들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적어도 그 방향들을 끊임없는 수신(修身)의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를 믿는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게 여겨 부지런히 구하는 자이다.”³⁾(「술이」)

처음부터 현명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는 몇 천 년 전 공자도 언급했던 말씀이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난 또 믿는다.

〈참고 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 같은 책, p.512.

3) 같은 책, p.231

사색하는 수신자(修身者)

성은주 | 인문과학계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어릴 때부터 소위 바른 아이였다. 길을 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버려 보았을 쓰레기도 결단코 버려본 적이 없고, 내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애썼으며, 어려운 사정을 가진 분들의 곁을 어쩔 수 없이 지나칠 때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꼈다. 남의 것을 탐내어 본 적도 없었고, 항상 부모님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에게 바르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왜 인(仁)과 의(義), 그리고 예(禮)를 행하지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강력 범죄를 차치하더라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노약자석에 앉은 후 비켜드리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마음가짐만 굳고 곧바르게 한다면 손쉽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 나는 ‘바름’을 지향하는 나 자신의 내면을 맹신했고, 이 신념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수신(修身)의 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더웠던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땀벌에서도 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곤 했던 나는 그 날도 어김없이 계획한 양의 방학 숙제를 끝내고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다. 때마침 친구에게서 몇 시간 뒤에 해가 조금 저물면 만나자는 문자가 왔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돈을 조금 가지고 나오라는 말과 함께. 당시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다. 늘 친구들과 놀이터나 운동장, 혹은 아파트 단지를 전전하며 놀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끔 한 두 번씩 시내(지방에서 사용되는 ‘시내’의 개념)에 나갈라치면 부모님께서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며 돈을 쥐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점차 무언가를 사 먹는 것을 ‘놀다’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서 쭈쭈바라도 하나 사 입에 물고 놀이터에 앉아 있다거나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주문한 후 매장 내에 착석해 수다를 떨며 더위를 피하는 식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쓸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나는 부모님께 필요한 돈이 있다고 잘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소풍이나 수련회를 갈 때도 이런 날만큼은 즐겨야 한다면 부모님께서 먼저 돈을 주셨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돈까지 일일이 타내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여겼다. 돈을 조금 주실 수 있겠냐고 말씀드릴 바에야 친구들이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결정이었다.

문제는 친구들이 먹을 때 먹지 않는 것도 한두 번이라는 것이다. 친구들은 같이 먹기를 권유하거나 오히려 내가 먹을 것까지 사주었고, 나도 보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곤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내가 먹을 것을 사지 않더라도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 사실 초등학생이라 문구사에 가서 200원, 500원 하던 소소한 불량식품들을 사먹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곤란한 점은 나의 수중에 그 정도의 돈도 없었다는 것이다. 친구로부터 몇 시간 후에 보자며 돈을 조금 챙겨

오라는 문자를 받았던 날은 이 무렵이었다.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필요한 돈을 몇 번 타냈고 더 이상 요구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상황. 이 때 정말 번개처럼 내 머리 속을 스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다. 엄마가 당신이 사용하시던 옷장의 맨 아래 서랍을 여닫을 때 얼핏 보였던 동전들의 상자!

그 동전 상자는 지폐를 내고 거슬러 받은 동전들을 처치할 방도가 없어 임시로 동전을 보관하는데 쓰던 상자였다. 상자를 기억해 낸 나의 눈앞에 수많은 동전들이 어른거렸다. 나는 곧바로 옷장이 놓여 있는 방으로 달려가 옷장 문을 열어 젖혔다. 그리고는 멈칫했다. 내가 이런 행동을 충동적으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이내 옷장 맨 밑의 서랍까지 손을 뻗었다. 드르륵- 서랍을 여는 소리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집이라 그런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없는 집.’ 만약 나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번 뿐이잖아? 엄마가 처치하기 곤란한 동전을 모아 뒀는데 내가 필요해서 조금만 가져가는 거야. 어차피 불필요했던 동전, 내가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나는 내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며 ‘잘못됨’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딱 오백 원짜리 두 개를 가져가는 거야! 두 개면 티도 나지 않고 엄마에게 경제적인 지장을 주지도 않아.’

나는 오백 원 두 개를 집어 들고 침착하게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결국 거실에 멈춰 서고 말았다. 고작 천 원 일 뿐인데 그냥 가져오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생각하는 나에게 이상하게도 짜증이 났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왜 못 가져오는 거야? 왜? 왜!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동전을 가져오지 않으려 했다면 아예 옷장

을 열어볼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설령 가져온다 하더라도 너처럼 도중에 멈춰 다시 생각해보지는 않는다고!’

머리가 너무 아팠다. 속에서 원인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말 그대로 ‘번뇌’ 했다. 지금 그 때를 돌아보면 정말 웃기지만, 내 인생에서 심히 고민했던 소수의 순간들 중 하나였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 동전을 가져간다면 올바른을 위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령 눈 딱 감고 동전을 가져간다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겠지만 무언가를 훔쳤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善)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처럼 선(善)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공자께서는 이익과 명과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¹⁾(「자한」)

공자께서 말을 드물게 하여 가르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利)’가 포함된다. 이로움을 말하면 사람이 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의(義)에 해로운 까닭이라고 논어는 설명하고 있다. 딱 지금의 내 상황이 아닌가. 내가 동전 상자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로움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움을 말하는 나의 마음은 단순히 동전 상자의 위치만을 기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별 다른 노력 없이, 한 번만 의(義)를 해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탐내고 있었다.

문득 이 상황이 우스웠다. 고작 1000원 때문에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고 동시에 마음이 허한 느낌을 받았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또한 1000원을 탐함으로써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사실에 고소를 금치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 모를 화가 치밀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엄마 소유의 돈을 탐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

1)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286.

었다. 가져오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져올 것이지, 남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웬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있을 법한 상황에서 빚어진 하지 않을 법한 고민을 하는 내가 약간 비정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을 뿐이다.” ²⁾(「위령공」)

그러나 내가 한 고민은 진정으로 선(善)이나 의(義)를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천지의 모든 일은 신중하고 삼가는 태도로 일관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내가 동전 두 개를 두고도 고민을 한 것처럼 어떠한 행동을 하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위령공(衛靈公)편에 기록되어 있는 위 논어의 구절과 그 의해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의 일을 시작할 때 초두에 ‘저 일을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온갖 일을 도모함이 반드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지 않고 경거망동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나는 도서 ‘논어’에 실려 있는 의해와는 조금 다르게 저 구절을 해석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하려는 데 있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확장된 의미로도 수용할 수 있는데, 모든 언행에 있어 “어찌할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어찌해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어찌해야” 인(仁)하고 의(義)하며 예(禮)를 갖춘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찌할까”하고 자문(自

問)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꼭 초두에만 “어찌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도중이든, 끝마칠 무렵이든 언제든지 “어찌할까”라는 물음을 되풀이하며 바름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하려했던 일이 일상에서 ‘업무’의 의미를 지닌 일-계획을 세우거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었고, 선한 종류의 일도 아니었지만 마땅히 “어찌할까?”라는 물음을 던져보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어찌할까?”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 나의 고민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끝이 났다. 나는 이 숙고와 사색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느꼈다. 오백 원짜리 동전 두 개를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 싶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를 얼마나 부질없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하였다. 답이 나오지 않는, 혹은 한 눈에 보기에도 귀찮고 번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 수학 문제를 마주했을 때처럼 그냥 생각이란 것을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이 때 했던 단 한 번의 사유를 통해 나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내가 몰래 가져가려 했던 동전 2개를 쥐고 거실에 서서 그 당시의 그릇됨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선이란 무엇이며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 수양의 부족함과 미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이(利)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두 생각했던 것이다. 즉 사유함으로써 수신(修身)의 토대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이 없다.” ³⁾(「이인」)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욕심은 본래 양립할 수 없으며 사람이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인하지 못한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사람이 진실로 마음의 힘을 온전히 하여 인에 뜻을 두면

2) 같은 책, p.559.

3) 같은 책, p.99.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만인이 가지는 되잖은 행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생각’과 바름에 관한 ‘고민’의 부재이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리에 어긋나지 않을지 고민할 때 비로소 수신(修身)이 이루어진다. 수신(修身)에 있어 사색, 숙고, 상사(想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과 고민은 수신(修身)의 근본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바름’이 무엇이며 나는 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수신(修身)의 밑바탕이요, 수신(修身) 그 자체이다.

“그만인가 보구나! 내가 능히 그 허물을 보고 안으로 스스로 뉘우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4) (「공야장」)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뉘우치지 못한다며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장려하기 위해 저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나도 끊임없이 내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것이다. 사색과 고민을 거듭하며 수신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름을 향한 물음을 던지지 않으며 그에 관해 묵상(默想)하지도 않는다. 어린 아이들은 멋모를 나이이니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치자.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일부로 이에 관해 생각해 보지는 않고,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매달리느라 이러한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대학생이 되면 놀기 바쁘거나 일찍부터 취업준비를 한다며 이런 유의 고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다운 자신의 모습으로 일생을 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다운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신(修身)’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단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시간의 일부를 내어 수신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일 뿐.

4) 같은 책, p.163.

우리는 훗날에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 등을 하면서 현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수신(修身)의 시간도 유보한다. 그러나 수신은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수신(修身)의 근본은 생각과 고민이다. 자신을 수양할 시간을 하루에 5분조차도 내지 못한다면 미래라 해도 나다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나찾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삶은 자신을 만들어가도록, 수신(修身)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 어느 사회에서도 수신(修身)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를 돌아보고 수양한다는 점에서 수신(修身)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현대인들이 크게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절대 까다롭거나 힘든 일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려할 때나 하고 있을 때, 혹은 다 행한 후라 하여도 언제든지 ‘바름’과 나의 행동을 견주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름’에 최대한 근접한 행실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어떠한 행위에 고민과 숙고의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오백 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도둑질하려다 중도에 멈춘 후 생각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이다.

그 날의 고민은 사소한 고민이었지만 나의 삶을 좌우한 중한 고민이기도 했다.

항상 그 때의 일을 떠올리며 수신(修身)과 관계된 고민을 태만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어도(志於道)하며 근어덕(據於德)하며 의어인(依於仁)하며 유어예(游於藝)[도에 뜻을 두며,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며, 예에 놀 것이다-논어(술이)]하도록 수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인의 상당수가 아무런 고민 없이 500원 두 개를 가져오려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그대여, 사색하라!”

팔 할의 바람

〈참고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안 샘 | 유전공학과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서정주, 「자화상」)

올해 내 나이가 스물셋이라 더 눈길이 가는 구절이다. 일제강점기에 했던 친일 행적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썼어도 나로서는 정이 가지 않는 시인이 서정주 시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화상」의 저 구절만큼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구절을 찾지 못했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성장하게 한 것은 따스하기만 한 햇살이 아니라 나를 뿌리 채 뽑을 정도로 몰아친 바람이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은 자부심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물론 시는 거기서 끝을 맺지 않는다. 시인은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했지만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나와는 조금 다르긴 하다.

첫 번째 바람은 초등학교 때 불어왔다. 나는 따돌림의 피해자이기도 했고, 가해자이기도 했다. 그 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는 정말 이해

하기 힘들지만 같은 반의 아이들 대부분 따돌림을 당하고, 따돌림에 가세한 경험이 있었다. 줄을 서서 순번대로 급식을 받는 것처럼 나의 차례도 왔다. 처음으로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과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역지사지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게 되었다. 나는 따돌림을 당하기 전에는 골목대장처럼 활발했고,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그 말은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행동은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사실을 잊어버려도 나는 잊을 수 없듯이, 나는 잊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철없이 웃고 떠들며 괴롭게 만든 사람의 심정을 그 입장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했던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들이다.

따돌림은 며칠이 안가 수그러들었지만 그 이후로 나는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한 번 더’ 하고 되뇌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말을 고르고 골랐다. 내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말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도 조심하기 시작했다.

내 삶에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두드러지게 잘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을 하든 그럭저럭 잘 해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성적도 큰 노력 없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렵게 해내는 일을 조금 요령 있게 할 줄 아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만심이 터질듯한 풍선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었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우월감을 느낀 것이다.

학년 초에 과학 과목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주최로 창의력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교내 1학년들 중 7명이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조를 이루게 되었다. 처음으로 조원들이 모인 날에 나는 마음 속으로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었다. 겨우 7명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했던 것 같다. 어리석게도 속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았다. 함께 해야 의미 있는 단체 활동을 독단적으로 하려 했으며, 내 몫의 일을 나태하게 진행했다. 그래도 금방 친구들을 따라잡고 오히려 훨씬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4번째 조모임이 있던 날, 나는 지각을 했다. 그 때까지 나의 방종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셨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일을 보여주시며 내가 한 일과 적나라한 비교를 하셨다. 나와 달리 다른 조원들은 지각을 해서 조모임에 지장을 준 적도, 자기 몫의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다. 당연하게도 노력이 부족했던 나의 아이디어는 시간을 들여 고민해온 조원들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다. 결과물을 눈 앞에서 확인하며 나는 또 다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말을 가려서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던 나는 증발하듯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이 나의 나태함을 참아주고 있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주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한동안 선생님과 조원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그 일은 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돌림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얻은 교훈을 어느새 잊고 있었음을 알게 해 주었다. 다시 한 번 나는 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조모임에 참여했다. 그리고 부적절했던 나의 행동에 대해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¹⁾ (『안연』)

논어에 쓰여진 한 줄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배웠다. 물론 지금 아는 것을 그 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요령이 없는 편이라 직접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기 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다. 따돌림을 당하던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날카로웠던 칼도 쓰면 쓸수록 무뎌지듯이 배려하는 마음도 무뎌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내 마음을 버릴 수 있었다.

“자공 : 한 마디 말씀으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 : 서(恕)이리라.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²⁾
(『위령공』)

단순히 한 번 교훈을 얻었음에 만족하면 안 된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렵게 얻은 보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빛이 바래기 때문이다.

부끄럽고 힘든 기억만이 나를 성장하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 학비를 낸 순간은 나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 주기도 했다.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은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긴장

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 준 것은 힘들었던 경험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두 발로 서서 걸었을 때의 환호와 기쁨보다 넘어졌을 때의 아픔을 강렬하게 느낀다.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를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만든다. 사탕의 달콤함보다도 상한 음식의 시큼하고 역한 맛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맛의 경험이 또 다시 상한 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탈이 나는 것을 막는다. 그야말로 나를 키운 팔 할은 바람인 것이다.

『대학』은 자기 수양을 통해 국가와 천하를 경영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그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는 자신을 수양하는 단계인 수신(修身)이다. 나에게 수신이란 바람의 감각을 기억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난 고난이 주는 교훈, 고난을 헤쳐나갔던 방법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새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나의 수신이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1)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p. 26.

2) 같은 책, p. 135.

미완예찬(未完禮讚)

유병훈 | 글로벌경제학과

우리는 대부분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를 갈 때 어느 한 방향으로, 한 방법으로만 가야하나요? 당연히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정도(正道)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살아가는 방법도, 추구해야 하는 방향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떠한 한 가지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기준에 쉽사리 미치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에 대한 노력은 모두 헛수고이며, 실패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 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자존감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정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질곡에 스스로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고찰하는 것이 참된 나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어느 한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는 그 날 국어책 진도 범위가 아니라 빈 공책을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채로 공책을 폈고,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쪽 나열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어렸던 우리들은 ‘갑자기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하세요.’ 라며 선생님을 요리조리 놀리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군대에서 들어가서 개인 상담을 받게 된 이후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 지,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의 ‘나’ 가 되기까지 이끌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는 기호를 묻는 질문에 정곡을 찔려 저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공책이나, 나만의 인터넷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1. 따뜻한 이불에 누워서 조용한 음악 듣기. 2. 맛있는 고구마와 김치 등 무슨 이런 걸 적느냐 싶을 정도로 가벼운 것을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1. 칠판 긁는 소리 2.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들 이렇게 적다보니 마치 3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파악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적고 나서 내가 ‘왜 저것을 좋아하는 걸까?’ ‘왜 싫어하는 걸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 라는 사람에 대한 관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항상 어느 집단에서든지 의견을 그저 듣거나 따라가던 저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집단에서든지 의견을 잘 제시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있을 때, 제가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다보니까, 어떤 반대가 있든지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

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가 되는 일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을 보다보면, 저라는 사람의 안 좋은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단점 중 커다란 하나를 꼽자면 ‘열등감’ 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보다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던 모양입니다. 황상은 정약용의 강진유배시절 제자로, 추사 김정희에게 크게 인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문장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그가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같이 둔하고, 앞뒤가 막혔으며, 답답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이 없어서 공부하기에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3가지 문제점이라 함은, 첫 번째로, 금세 외우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믿고 대충 넘어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두 번째로,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은 말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방 파악하기는 하지만, 진중하고 깊은 맛이 없고, 마지막으로 빨리 깨닫는 자들은 꾸준히 반추하지 않아 그 깨달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화를 접했을 때, 번개를 맞은 듯 찢어졌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대부분이 느껴본 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 자신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만큼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라는 것에 얽매어 고통 받고 있나 하고 생각했었고, 저의 삶 자체가 좀 무의미해 보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일화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뒤쳐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는 공부라는 것에 뛰어나야만 잘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벗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들었던 어떠한 강의보다 저에게 삶의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가 정말 뛰어나지 못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늘 그래왔듯이 무엇이든지 대충하고 감으로 시험을 친다거나, 설레발을 치면서 일을 하면 그르쳐버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행하곤 합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가는 동안, 남을 대하는 자세도 항상 조심하고 진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조건 자신의 기준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적으로 지켜낼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지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어떠한 한다는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절대 누구라도 남이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설사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데 스스로를 탐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신만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단지 저와 다른 것일 뿐이니깐요. 이와 같이, 저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오히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항상 겸손해질 수 있고 진중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계발하는 하는 것보다 ‘나’ 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사회로 긍정적 에너지가 확산되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신,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

전효진 | 사학과

벌써 성균관대학교를 다닌 지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은 그 인연이 바탕이 되어서 학회도 하나 하고 있으며 학내 마술&타로 동아리에도 소속되어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나 자신을 신경 쓸 틈도 없이 바쁘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고, 지금은 전에 다짐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 ‘바쁘게 사는 게 내 삶이 발전하는 길일까’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나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살아간다면, 분명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의 보람은 상당하겠지만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삶이 참된 나의 모습을 일궈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나기도 한다. 물론 작년에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때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체험해보고 부딪쳐보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다. 그렇지만, 올해에 있었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후, ‘바쁘게 사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한 고

민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바쁘게 사는 삶, 더 나아가 타인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통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날 만한, 가장 힘들었던 시간

2015년 9월, 이번 학기가 시작되던 차에, 학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 약 한 달 반 동안 학회장의 일을 대신 맡게 되었다. 어리둥절하면서 대표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되었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다. 학회원을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이 학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심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랬던 만큼 이 기간 동안에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뛰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학회장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학회원들이 진심으로 잘 따라줄까?’라는 생각과 ‘차후에 학회를 어떤 커리큘럼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모두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속으로만 담어놓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9월 말, 문득 머릿속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사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학회원들이 잘 따라줄지, 그리고 학회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었고 막상 나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그 누가 ‘나’에 대해서 걱정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난생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마음이 매우 심란

했고, 다른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다. 점차 나에 대한 자괴감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문까지 닫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깜깜한 마음의 한 줄기 빛 正心, 그리고 修身의 길

그렇게 나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중, 마음을 약간 추스르고 시험공부를 할 겸 해서 인성고전 교재를 꺼내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그러던 도중 대학의 첫 구절이 마음속을 깊이 찌르고 들어왔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대학』)

처음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 때 이 구절을 읽어보니 나 자신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두 달 동안에 말 그대로 타인만을 생각해왔던 반면 나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명덕(明德)이,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도 없이 주변 환경에만 신경을 쓰면서 점차 가려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 사람들 걱정과 이와 관련된 생각만 하다 보니, 그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불편하게 해 왔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어왔던 것이다.

대학의 첫 구절을 통해서, 내가 학교생활 내에서 ‘나’ 라는 고유한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해 본 결과 대학의 8조목 중에서, 정심(正心)이

라는 단어에서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을 수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심(正心)을 바탕으로 수신(修身)을 할 수 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든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가 자기수양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를 바로잡고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인격의 성숙’, 더 나아가 ‘수신’ 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나 자신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 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심과 더불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확실하게 하는 ‘성의’ 또한 수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성의(誠意)를 통해 타인에 적용 가능하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의’ 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수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타인과의 연계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다운 나’ 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을 깨닫고 난 후, 학교생활에서 내가 계속해서 고수해 왔

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차차 고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 면에서, 이전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지만 그것을 쌍방향의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만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었던 반면, 지금은 최대한 사람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속의 짐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일을 내가 떠맡으려고 하는 고집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올해 9월에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학회 업무에 관여해 왔으며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 자체가 나의 능력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이었고,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옛말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일을 할 때 혼자 떠맡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회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한 결과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학회원들 모두가 학기 초에 비해서 학회에 대한 애정이 돈독해지고 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신의 길, 자신의 변화가 타인의 변화를!

타인을 챙기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며 사회 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첫 구절에서, 자기 자신의 명덕을 밝힌 후에 타인을 새롭게 하라는 것으로 보아, 타인의 측면으로 무조건적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갈고닦는 것이 더 우선 시되어야 하며 수신이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할수

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어떠한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된 나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번 학기를 통해 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과정 내에서도 ‘나’ 라는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된 ‘나’ 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이동환 역해, 『대학』, 현암사, 2008.



• 장려상

수신(修身) - 참된 나 이루기

김현진 | 신소재공학부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장려상

여름방학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나른함에 젖어 있을 때 논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 중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너네는 너희들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해?” 그리고는 칠판에 3가지 답안을 쓰셨다. 1번 3000원, 2번 60억, 3번 300억. 나의 머릿속에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만약에 내가 납치범에게 잡혔다면 한 3억 정도의 금액을 부를 거 같아. 만약 나를 시장에서 판다면, 그래도 나는 영어도 할 수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1억은 되지 않을까? 회사에 들어간다면 초봉이 내 몸값이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엉키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칠판에 한자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적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1번 3000원의 몸값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값이다. 2번 60억은 박지성의 몸값이고 3번 300억은 호날두의 몸값이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면 내 몸값은 도대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박지성은

어렸을 때부터 평발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운동했어. 박지성은 자기 몸을 잘 가꾸었어. 이게 수신(修身)이다. 그리고 명지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축구선수로 발탁이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 대표가 되었어.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되었지. 수신(修身) 전 단계 우리는 3000원의 몸값을 가지지만 내 몸을 잘 가꾸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값은 달라져. 너네의 몸값은 너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수업이 끝이 났다. 기숙사에 들어와 평소와는 달리 침대에 눕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다. 그리고 나의 몸값을 어떻게 형성할까에 대해 알기 위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대해 검색했다.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천하를 다스리고자(평천하, 平天下)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으며(치국, 治國),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집을 다스렸고(제가, 齊家), 그 집을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그 몸을 다스렸다(수신, 修身).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렸고(정심, 正心),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참되게 했으며(성의, 誠意), 그 뜻을 참되게 하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앎을 이루었다(치지, 致知). 앎을 이루는 것은 사물을 궁구함에 있다(격물, 格物).¹⁾

노트북을 닫고 누워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몸을 다스려야 된다.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있어서 의지를 세우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 된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천하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원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어른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처음 접한 그날은 왠지 모르게 이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나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참된 나 이루기를 통한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매우 좋은 환경에서 컸다. 서울에서 태어나 의사이신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으며 강남 8학군에서 교육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이 언제나 무척 두렵고 힘들었다. 특히 학년이 바뀔 때나 새 학교에 입학할 때는 아는 친구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개학 한 달 전 부터 잠을 설쳤다. 나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선택했다. 공부는 내가 비교적 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였고,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기억해 주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통해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해 갔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사귀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극복한 것 같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위기가 찾아왔다. 갑자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졌다. 동시에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서 수업시간에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첫 모의고사를 볼 때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1교시 밖에 못보고 조퇴를 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는 내 옆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으셨다. 어머니께서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가

1) 백형찬, 『몸 다스리기 (글로벌 리더-세계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아홉가지 원칙)』, 살림, 2007.

나도 모르게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나를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 모든 사람은 수줍고 두려운 면과 활발하고 용감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직 너의 활발하고 용감한 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방을 나가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몸이 편안해 졌고 마음도 함께 편안해졌다.

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했지만, 모의고사 사건 이후 남의 눈치를 보며 하는 공부가 아닌, 나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관심 있고 흥미가 가는 공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나는 내가 물리와 언어 수업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순수 과학 이론보다는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학문인 공학을 전공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세우게 되었다. 뜻을 세우고 난 뒤,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전에는 잘 아는 친구들과만 말을 했었는데 어느덧 한 번도 이야기 해보지 않은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몸도 건강해 졌으며 시험 보다가 뛰쳐나오는 일은 그 이후로는 없었다. 나에게서는 남들이 지겨워하는 고3 수업 시간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바뀌었다.

대학교는 처음으로 집에서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하는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두려움보다는 나의 뜻을 실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설다. 나는 강의실에서, LC 모임에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같이 만나서 놀다보니 나는 내가 세운 뜻의 의미를 잇은 채 한 학기를 보냈다. 2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 어느 날, 나는 캠퍼스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한온 조직위원회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았다. 포스터를 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불꽃이 터졌다.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포럼-한온이 잊고 지냈던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가서는 너무 긴장해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래도 면접관의 질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다해 대답했다.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가치를 세계의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패기 넘치는 대답으로 한온을 시작했다.

나는 2015 한온 조직위원회에 속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되었다. 포럼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 나는 외국인을 만나서 놀고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았다. 한온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부서별로 일을 나눠서 하는 회사였다. 나는 기획팀으로써 주중에 있는 기획팀 회의와 주말에 있는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기획팀은 매주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갔다. 기획안을 빨리 만들지 않아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홍보팀의 독촉, 회사에 기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행사 후원사를 찾기 힘들다는 재무팀의 독촉, 기획이 별로라는 사람들의 아우성, 그리고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나가고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다른 조직위원들과 여러 번 싸우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하며 화가 나도 화를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가졌다.

기획팀이라고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일 년을 보낸 것은

아니다. 홍보를 할 때는 모든 조직위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도, 자연과학캠퍼스에서도, 연세대학교에서도, 고려대학교에서도, 아주대학교에서도 더운 여름날 우리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붙잡고 열심히 홍보했다. 1학기에는 성균관대학교 국악동아리, 탈춤동아리, 그리고 힙합 동아리와 함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을 기획했다. 아무도 사회를 보려하지 않아 막내인 내가 사회 보는 것을 떠맡게 되었다. 모르는 외국 사람들 30명 앞에서 그것도 단상에 올라가 혼자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사회를 봐야 한다고 했을 때 내 눈앞은 캄캄해졌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으로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회를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조언도 구하며 대본을 썼다. 드디어 사회를 보는 날 아침이 밝았다. 무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렇다고 모의고사 사건 때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두려움을 깨고 용기를 갖고 올라갔지만 나는 걱정과 달리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고 규정지었던 틀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사회를 본 이후로 나는 국적이 어디든, 나이가 많은 적든 간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즐겼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던 상관없이 대화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 년 동안 내 참된 뜻을 좇아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나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환경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던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성격도 밝아지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나는 할 일이 많다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학업과 한온 활동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두가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우리는 15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2박3일 동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았다. 마음의 변화로 인해 내가 뜻을 둔 활동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같이 나타났다. 나는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가족들이 항상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의 나는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사 개설 수업을 듣고 있다. 이는 비단 한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참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아는 것은 나의 뿌리를 아는 것이며 나의 부모를 아는 것이며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는 한온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독일, 멕시코,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자주 물어봤다.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라고 물어보면 모든 친구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해줬다. 자기 고향은 비가 올 때 아름답다고 사진을 보여주는 친구, 전통 춤을 추는 영상을 보여주는 친구, 전통 노래를 들려주는 친구.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 외국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오랫동안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한온에 들어가기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던 내가 부끄러웠다. 한국인으로써 오랫동안 한국 문화나 역사를 멀리한 내가 그 친구들 앞에서 작게만 느껴졌다. 그때부터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의 목표에서 나아가 한국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 되었다.

앞으로 나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온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기업을 소개해주는 비영리 단체 GSMF에서 활동하면서 내 뜻과 꿈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른다. 나는 어쩌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논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김화현 | 통계학과

밟고 있을지도 모르고 대기업에 취직해 있을 수도 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남을 도우며 한국인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 목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참된 나를 이루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나를 절제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 여러 일에 둘러싸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순간을 즐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겠다는 내 뜻을 세웠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오직 나만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한다. 우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의 뿌리가 한국에 있으므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한국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완성시킨다. 참된 나 이루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며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년 뒤 누군가가 나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물어본다면 나는 말없이 종이에 이렇게 적을 것이다. “수신(修身)”

〈참고문헌〉

백형찬, 『몸 다스리기 (글로벌 리더-세계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아홉가지 원칙)』, 살림, 2007.

논어에서 가장 죽비처럼 나를 올리는 말은 서(恕)이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참 어렵고 어려운 말이다. 어떤 상황을 마주 쳤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할 것이라 여겨야 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대학』의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마음을 포착하는 일은 내게 늘 큰 과제였다. 자연스럽게,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가 이러한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 행동했지만 다른 이에게는 싫은 일이었던 일이 많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다른 개인적인 시간들을 줄일 만큼이나 말이다. 시간도 그리 하거니와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상대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혼자 있는 것은 내겐 외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나는 어

면 이에게는 부담이었고 자기계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또, 타인의 시간을 옥죄는 사람이기도 했고 일연 집착과 애착이 심한 사람이었다. 대학교 2학년, 2011년이 되기 전까지의 나는 다른 이들이 어째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려 해도 실제로 마음 깊이 느끼지 못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역시 상대방의 입장이었던 일을 겪고야 그 ‘싫음’의 느낌을 알게 되었다. 겪지 못한 마음을 느끼는 동감이 아닌 공감은 내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역시 어렵다.

1살부터 4살 때까지 나는 친할머니 손에 자랐다. 할머니께서는 아들 2명을 잃으셨다. 살아계셨다면 내게 큰 삼촌이었을 두 분.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의 첫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도 딸이라 미워 않으셨다. 사람은 그 자체로 예쁘고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으로 좋은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께 꽤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다. 어린 나는 굉장히 예민하고 애착이 심하고 잔병치레가 많았다. (때문에 외가댁에서는 내가 깽쟁이라고 미워한 어른들이 계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며 정말 무던히도 사랑해주셨다. 어린 나에겐 큰 기쁨이었고 지금도 힘을 내게 하는 나의 고향이다.

어렸을 때의 그 경험 때문인지 나는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겐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 너무 좋은 일이었기에 사랑은 그 마음으로 많이 주며 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무던히 주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상황에 적당한 것인지는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준만큼 내 놓으라”는 부담이었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에 행하는 친절로 해석된 것이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기에 충분히 그런 것이 부담이었을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이를 알지 못했다. 나 역시 누군가가 자신이 베푼 만큼 돌려 달라 하면 힘들고 싫을 테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에 몰랐다. (나에겐 누군가 내게 애정을 베풀어준다면 기쁜 일이고, 아니라

면 슬프지만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었다.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인지 떼를 써서 미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을 다니며 좀 더 많은 환경에서 온 다른 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웠다. 나는 주는 것이 쉬웠고 받는 것도 기뻐지만 다른 이에게는 받는 것이 부담이었다. 받은 만큼 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들이는 일을 멈추기란 쉽지 않았다. 나를 축낼 만큼이나 내게는 지나치게 쏟아져 나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찝찝할 만큼 마음에 크게 남았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것이 공부였다. 2011년,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했다. 휴학을 하면서 밴드 동아리, 회사 아르바이트, 친구들 만나기, 멘토링 봉사활동 등 활동을 했다.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다양했다. 책을 보며 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내겐 이것이 공부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일은 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쩌면 참된 공부는 책 속의 글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실천인 것은 아닐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친구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회사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해보기도 하고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해보기도 했다. 어떤 시점이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조금은 다른 이의 마음을 배려하는데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많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나는 여전히 어설프고 어리석었다. 상대의 마음과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恕).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가끔 이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서(恕)를 잘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타인만을 위하기에는 이기적인 나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를 위하

는 마음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선택이나 배려를 행하게 되면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은 갈 곳을 잃고 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 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 쓰지 못하는 작고 좁쌀 같은 나 자신인 상태로는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척”을 하게 될 뿐이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계속 죽일 수 있게 해야 하는가?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은 단지 사욕으로 볼릴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곤 했다. 그것은 내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껴지지 않은 내 마음들은 내 안에서 이리저리 나를 찌르며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입장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은 나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타인과 나. 그 ‘우리’를 향하는 마음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적정한 것인지, 그 중요한 문제가 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졌다. 왜 나는 한쪽 극단에 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나는 중(中)과 화(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 가장 머릿속을 떠도는 내게 주어진 과제들 역시 중(中)과 화(和)이다.

내 이름은 ‘김화현’이다. 성씨인 김을 뺀 이름 ‘화현(和顯)’은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절에 가 받아오신 이름이다. 이중 현은 집안의 돌림자였기에 실제 지은 이름은 ‘화(和)’이다. 중학생 때 학교 한문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름 뜻과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이유를 부모님께 물어와 발표를 하는 숙제를 주셨다.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라 어머니께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가 특이했다. 할아버지께서 ‘나현’과 ‘화현’을 받아오셨는데, 나현은 너무 여자아이 이름 같아 ‘화현’이라는 이름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 발표가 참 난감했다. 딸아이인데 다른 이름은 너무 여자 같을까봐 택한 이름이라니.... ‘화(和)’의 의미 역시 너무 거대하고 모호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와 나는 내 이름이 무겁고 죽비같이 여겨진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떠올리고 수양해야 할 이야기. 할아버지께 어떤 이유로 이름을 지으셨는지 물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만약 손녀가 살아가면서 늘 곁에 두어야 할 글자를 이름으로 삼고자 여기셨다고 생각하면, 난 할아버지께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이름으로 불리는 동안은 나를 아끼신 할아버지의 마음을 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서(恕), 혈구지도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제대로 세우고, 가족부터 아끼는 친친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나 역시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태어나서 4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 자라 할머니를 향한 효는 가깝다. 친척들 간에 모여서도 할머니와 나의 어떤 유대감을 말할 정도로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은 사실 자라오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해 늘 어설피고 어리석게 사랑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내가 잠들 시간에야 귀가하셨다. 하나뿐인 남동생은 4살 차이로 어려 다른 친척집에서 어른들이 계신 곳에 있었다. 나는 할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시골에 내려가시자 서울에서 혼자 지냈다. 우리집-할머니가 아닌 친척들의 손과 집이 어린 마음에 무서웠기 때문이다. 9살 무렵부터 나는 하교를 하고, 학원을 가고, 홀로 지냈다. 때문에 부모님과 동생과 제대로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도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 두신 이후, 동생이 대학생이 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겹치기 시작한 이후, 즉, 작년부터의 일이다. 나는 한 집에 사는 가족 간의 소통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친친(親親)을 제대로 실천해야 타인을 사랑하는 애인(愛人) 역시 좀 더 성숙하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가장 하기 어려운 수양일 텐데, 친친(親親)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지금의 나에겐 꽤 중요한 과제이다.

그제야 좀 더 나아가 제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이끌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된 업적을 이루어내고 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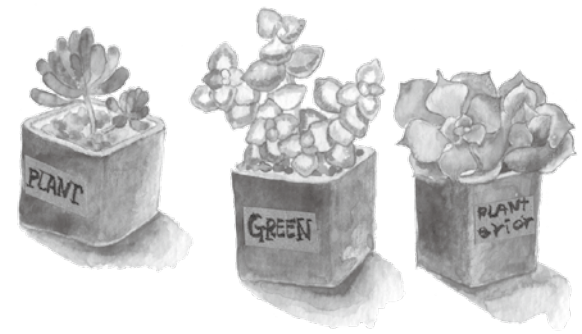
야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삶 역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늘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다. 성공을 원하고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작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싶다. 특히나 오랜 시간을 해야 하는 ‘직업’ 이라면 재산도 재산이지만 마음이 차는 일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했다. 다양한 분야이니만큼 금액도 여럿 차이가 있었다. 외삼촌의 회사에서 여타 대학생에 비해 시급을 더 받아보기도 했고, 중학생 과외를 해보기도, 일반 카페에서 매니저를 해보기도, 학교 행정처인 입학처와 출판부에서도 일을 해보았다. 하지만 금액이 더 크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더 보람차고 올바르다고 여겨지진 않았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좋았던 일은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듣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느낌과 이 일이 적절하다고 여겨졌을 때,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졌을 때, 부당한 일에 손을 얹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날 때였다.

5개월 전 헤어진 사람이 있다. 스무살이 되고나서 5년을 만난 사람으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한 타인이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는 날 우리 아버지만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의 아버지는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도 모든 걸 이해하는데 왜 너는 그러지 못하냐는 이야기였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자신을 낳고, 기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태어나 20년을 다르게 자란 채로 만난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실상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말하던 사람. 화가 났다. 불가능을 나에게 바라고 있었으니까. (이제와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내가 야속해서 나를 상처주기 위해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나의 부족함과, “그렇게 가장 사랑하며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집중하며 애썼는데, 잘 안됐다.” 는 생각

에 절망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는 것도, 부모님을 헤아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인 ‘이상’ 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더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로를 정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웃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수양 할 수 있게 나의 진로를 택했다. 내게 “공부” 라는 단어는 그런 식으로 자리 잡아있다.

“공부” 를 제대로 글자 그대로 내 마음에 집어넣은 것은 앞서 말한 사랑했던 타인의 그 마음을 느낀 순간이다. 내겐 25살의 일로, 대학생활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다. 무엇을 공부해야할지 찾고 업이라 느낀 것이 늦었지만 심리상담 치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답답함을 채우고자 한다.



깨끗한 비단이 되어 눈물 닦아주기

류다영 | 미술학과

모든 일의 시작은 ‘수신’이다. 수신이란 닦을 수(修), 몸 신(身)으로 이루어져 몸을 닦다, 확대하여 자신을 수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¹⁾ 이 단어는 청소년들이 윤리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중미디어를 통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나 역시 ‘수신’ 자체에 대해 큰 거리낌 없었고, 당연한 가치라고 인정해왔다. 자기 자신부터 닦고 성찰해야 큰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신제가치국지본과 같은 고사성어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누군가 나에게 장난스럽게 ‘수신’을 잘 해나가는 중이냐고 묻는다면, 처음 5초는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느냐고 대답할 것이다. 수신조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맥락 하에 말이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긴 시간 생각해 본 뒤, 진지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양심고백을 하자면 나는 겉보기에 ‘수신’ 언저리를 기웃거리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신’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수신을 잘 해나간다고 착각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작년 여름부터 장래희망을 교사로 정하였다. 심리적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아이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꽤 산뜻한 소신을 가지고 꿈을 정한 것이지만, 장래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극도로 집중함으로써 나의 모든 수양이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용하게 되었다.

과거의 내가 판단해본 결과, 장래희망은 희망일 뿐 나는 크게 두 측면에서 교사가 되기에 필수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고 마음먹었다. 첫 번째가 학업적 측면이다. 우선 내가 미술교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학교 내에서 뽑는 성적 순 교직이수를 해내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대학 내 학업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였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나에게 부지런하다고 칭찬 해주셨다. 적어도 수강 신청한 과목을 성실히 수학하니,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미술전공 지식과 기초교양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측면이 중요한데, 바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성격적 측면이었다. 사실 학업적 측면보다 교사로서 필수적인 성격요소를 갖추는 게 나에겐 더 큰 도전이었다. 바로 ‘내가 먼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무 살 초반까지는 내 성격은 어두운 측에 가까웠다. 우선 초등 저학년 시절, 힘든 경제적 형편덕분에 부모님이 이혼 직전까지 가신 뒤부터 줄곧 마음 한편에서 ‘사람사이는 다 헛것이며 인생은 나 혼자 깨끗이 버터내기만 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주로 해왔던 것 같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중학생 시절, 학기 초반에 잘 적응하지 못해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일까? 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아닌 타인을 불신하였고 마음의 문을 꼭꼭

1) NAVER 사전, 「修身」, 「한자사전」

달아왔다.

그런데 스무 살이 되어 너무나 괴로웠던 청소년시절이 다 지난날이었음을 깨달았다. 가정형편은 나아지면서 부모님의 관계는 호전되었으며, 나를 험담하기 바빴던 아이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 허탈하면서도 내심, ‘학창시절에 나를 외면하기 바빴던 선생님들 대신 날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이 곁에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욕심으로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따뜻하게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나는 꽤 다른 마음의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싶다. 여기서 내가 바로 ‘그 선생님’ 이 되어보자는 결심을 갖고 장래희망을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아예 고쳐먹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굳게 닫았던 마음을 열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어떤 타인이 날 못마땅해도 최대한 역지사지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존중해주었다. 세상 나 혼자 살겠다면 본인이, 타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눈에 띄게 대인관계가 한층 원활해졌다.

정리하자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성적도 많이 올랐고, 사람과의 소통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개인의 발전은 나로 하여금 수신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중도’ 를 모르고 ‘좋은 선생님’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자는 목표에 아주 경도되어버렸다. 쉽게 말해서 ‘좋은 나’ 가 되기를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하는데도, ‘좋은 선생님’ 이 가질만한 외면적 능력을 가지고 싶다는 일념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다. 외면의 소양을 끌어올리는 데만 신경을 다 쏟아 부은 나머지, 성적과 달라진 성격으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의 대우가 긍정적으로 달라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내가 장래희망을 가지기 전과는 다른 의미로 점점 내면이 외로워지기 시작하였다. 진정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탓인 것 같다.

안타깝게 진정한 ‘수신’ 을 놓치고 있던 나에게 『논어』의 「팔일」 편에

있는 다음 구절은 앞으로 수신을 해나가는 데 따끔한 충고이면서도 좋은 힘이 되어줄 것 같아 이 글에 써 본다.

자하가 공자께, 교소천혜·미목분혜란 여자를 보고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매까지 어여빠라 흰 비단에 아름답게 색칠한 듯 하다고 했는데, 시경 위풍에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고 나서 하는 것이니라 하였다. 자하가 말하기를, 덕을 세운 후에 예가 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바로 자하 너로구나 하면서 비로소 함께 시를 이야기 할 만하구나라 하였다. (「팔일」)

시구와 인간의 도의를 결부시켜 이해하는 자하의 재능이 드러난 구절이다. 자하는 공자의 대답을 듣고, 아름다움(여인의 미, 그림)을 그리는 데도 흰색 비단(훌륭한 본바탕)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도 먼저 내용으로 도덕을 쌓고 다음에 예를 갖추어 도덕을 빛나게 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된다고 이해한 것이다.²⁾ 나는 이 구절을 빌어, 스스로를 수양함이 어떠한 목적에 의한 예로만 치우치는 현상을 성찰하고자 한다. 내가 진정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자는 다짐을 칸트 식으로 말하자면 제0정언명령으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깨끗한 비단’ 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의 시작을 열고자 한다. 스스로 깨끗한 비단과도 같다고 떳떳하게 수신했음을 밝힐 수 있을 때, 교사가 가져야 할 예라 할 수 있는 학식과 인품을 함께 더한다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위 논어구절의 말을 빌리자면, 정갈하고 깨끗하게 닦지 않은 바탕에 수 없이 외적 요소들을 껴 엮어도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 구절이 또 「팔일」 편에 있다.

2) 홍승직, 『동양의 지혜1 논어』, 고려원북스, 2004, p.59.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예가 바른들 무엇하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겠는가라 하였다.³⁾(「팔일」)

그렇다면 선과 덕을 향하는 ‘수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논어 「자한」 편 두 구절을 평생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함을 직감하였다. 자, 인간에게 ‘수신’이란 그 끝이 없지 아니한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추구하는 것은)비유하자면 산을 만드는데 흙을 거의 다 쌓아놓고 마지막 한 삼태기를 미처 쌓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비유하자면 평지에 산을 만들려고 비록 처음 흙 한 삼태기를 붓더라도 끊임없이 진행하면 내가 나아가는 것과 같다.⁴⁾(「자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싹을 뒤웠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도다.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도다.”(「자한」)

첫 번째 구절은 도를 추구하는 것 즉 사람이 사람다운 길을 가는 것은, 누가 더하고 덜함이 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임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수신’ 역시 그 끝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은 식물을 사람에게 비유하면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들어 다른 식물의 거름이 되기까지 단계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각각의 단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력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니, 사람으로서 계속 제 몫에 정진할 것을 역설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⁵⁾

3) 위의 책, p.56.

4) 위의 책, p.203.

5) 위의 책, p.204.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수신하고 있다고 착각했는지’ 설명하였고, 논어 구절을 통해 수신에 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어조를 역전시켜 보자면, 비록 학업적 측면이나 성격적 측면이 본질적인 ‘수신’을 향해 수양한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 그 수양은 비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가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양으로 인해 얻은 이로운 결과 전부를 회회하는 것은 ‘수신’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로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삼아 더 선하고, 더 덕스러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닦아나간다면, 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욱 든든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적 측면에서 보아도 이제껏 외면적 능력 수양에만 정신을 집중한 점은 올바른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걸 깊이 고찰할 수 있었다.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몇몇한 사람이야 말로, 능숙한 대인 조절 능력과 학식을 잘 조율하여 학생들에 존경심을 가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지식과 대인관계 능력만으로 선생님의 역할모델을 짐작했던 사고방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끊임없는 수신을 통해 내가 ‘깨끗한 비단이 될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21살 동안 이를 놓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나름대로의 예를 실천하는 방식을 터득해나가는 중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환하게 열려있으므로 반성을 이쯤에서 접어두고자 한다.

이제부터 수신을 함으로써 본인이 깨끗한 비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청소년 뿐 아니라 심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고 싶다. 또한 실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수신한 나를 계기로 희망을 얻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때 내가 지향 인간상의 비유 대상으로 삼은 비단은 영원불변 한

것이 아니므로 종종 지치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헤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신’은 나에게 끊임없는 길이 될 것 같다. 수양을 통해 시간이 흘러도 최대한 깨끗하고 견고한 비단으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지만,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내 자신이 얼룩진다면, 다시 기운내서 닦아나가면 된다. 여기서 나의 수신이 오로지 타인을 위한다는 입장은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오히려 계속해서 나의 발전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기에 내 기쁨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나 혼자 깨끗한 것으로 남는 것보다 상처를 조금씩 나눠가지게 되더라도 타인이 수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결국 수신의 참 행복이 아닐까싶다.

〈참고문헌〉

홍승직 역해, 『동양의 지혜1 논어』, 고려원북스, 2004.
NAVER 사전, 「修身」, 「한자사전」,

• 장려상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박채원 | 영상학과

“아직도 50키로야? 아 짜증나 진짜. 살 왜 안 빠지는 거야?”

이것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하게 불어난 몸무게를 원상복귀 시켜놓기 위해 금식하고 운동을 하던 내가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며 했던 소리이다.

예술고등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던 나는 3개월에 한 번 씩 영화 촬영을 했는데 밤샘 작업으로 배가 고파 항상 새벽에 스태프끼리 치킨을 시켜먹고 고3 때는 입시를 한다는 구실로 군것질거리를 달고 살았다. 결국 대학 합격 후 몸무게를 재보니 10키로가 넘게 찌있었고 이제 정말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당시 나에게 “자기다운 자기”는 살이 찌기 전 여러 여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고 “나를 같고 닮고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며 살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루에 계란 2개, 닭 가슴살만 먹고 운동을 1시간 이상하니 하루 종일 허기지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이 오면 오만가지 핑계를 대어가며 약속을 취소했고

몇 몇은 ‘너는 매번 우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피한다. 서운하다.’ 고 말했지만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외적인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안타깝지도 않았었다. 결국 대학교에 입학할 때 쯤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야위었다며 불쌍해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도 만족하지 못한 나는 계속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다. 그 때 사람들은 다이어트만 하는 나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였고 나 또한 나의 꿈,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지는 관심이 없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나의 이런 습관은 계속 되었는데 지성인을 대표하는 대학생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온통 “외모, 다이어트” 등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런 나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대학생이 되었으면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발전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지 왜 더 퇴보를 하고 있니?” 라고 보다 못한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셨다.

“올바른 말로 일러주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은근하게 타이르는 말에 기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참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기빠하기만 하고 참 뜻을 궁구하지 않거나 따르기만 하고 실제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은 끝내 어찌 할 수가 없다.” (「자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나를 멀리하고 또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서서히 나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살이 찌는 나를 내버려 두고 공부나 인격 수양을 하기에는 다시 똥똥해진 내 모습이 아픈거리며 겁이 나 한참을 주저했던 기억이 난다. 공자가 말한 “어쩔 수 없는 사람” 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나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회에 득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당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었다.

이런 나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명동에서의 일이다. 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딱 봐도 수많은 인파 속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았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미아가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아이에게 어머니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패닉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계속 울기만 했다. 나는 일단 빨리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112에 전화를 해 명동역 4번 출구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한 명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전화를 끝마쳤을 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 싸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 경찰이 오기 전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왔고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한 외국인이

“She did a great job. - 그녀는 정말 좋은 일을 했어.”

라고 말을 해 주었고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들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다이어트로 10킬로를 감량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만족감이 내 속에서 끓기 시작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나의 날씬해진 몸이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냐고 물으면 0이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다. 항상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모습 때문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봉사가, 나의 친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면 이걸 계속 해도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깨달음은 텅 비어있던 나의 마음 속 빈 곳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토대로 봉사를 토대로 나의 내적인 마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때 봉사 시간을 쌓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가족사진을 촬영해주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사 활동 시간 채우기 용이 아닌 정말 남을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확실히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여서 그런지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었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내가 더 행복했다. 더군다나 내 전공은 영상이어서 사진 촬영을 하며 나의 전공적 능력까지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나의 정신적인 성장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환원도 하니 일석이조인 셈이었다.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예의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음악을 한들 무엇 하겠는가?” (「팔일」)

봉사 외에도 시나리오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이때까지 나의 시나리오는 지극히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해 시나리오를 썼다. 물론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기본적인 작가의 소양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한다.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취업준비생에 관한 시나리오 그리고 치매 노인 분들에 관한 것이다. 물론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하지만 나의 영화를 보고 세상이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나의 마음이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내가 먼저 내 눈동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내 눈 앞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눈을 통해 볼 수 없는 것들은 결국엔 마음을 통해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잠깐의 순간,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내 인성과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니 비교적 남의 눈에 잘 드러나는 육체적인, 외적인 것을 갈고 닦았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현실 도피와 자기 합리화라

는 틀 안에 멈춰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계속해서 내 눈앞을 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단지 그 순간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신뢰해야 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믿게끔 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지 않은 행보를 뻔히 알고, 보고 있는데도, 내 눈 앞에 일어나 있는데 눈을 감고 그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어쩌면 과거의 나도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경우의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부분 속 나는 눈앞에서 유리 조각이, 나의 내면이 깨지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척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눈을 감아도 나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토록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도 말이다. 물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나의 내적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나를 만든다면 멀지 않아 공자가 말한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군자의 도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처신에는 공손하고, 외사람을 섬김에는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먹여 살림에는 은혜롭고, 백성을 부릴 때는 의리에 맞게 하였다.” (「공야장」)

〈참고문헌〉

김형찬, 『논어(슬기바다1)』, 홍익출판사, 2005.

나는 나답게(我我)

변준석 | 경영학과

2008년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의 담당이었던 한문시간이었다. “학이시 습지면 불역열호아...” 노충각 선생님은 티질듯한 팔뚝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써내려 가셨다. 그것이 나와 논어의 첫 만남이었다. 물론 논어가 어떤 책이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수업을 시작하실 때면 논어의 시작구절을 암송하게 했고, 그 때 암송했던 논어의 첫 구절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한적한 여름날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나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다시 논어와 만나게 되었다.

뒤돌아보기

대학 진학 후 신입생 때에는 공부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에 매일 부어

라 마셔라 놀았던 것 같다. 즐거웠던 시간은 찰나 같이 지나갔고 남은 것은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창피했던 성적표뿐이었다.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던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다.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 하니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았던 것 같다. 철부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학 전 학비를 내 손으로 벌어봤고, 복학 후에는 뒤를 돌아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쪽 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어쩌면 앞으로의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게 될 취업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논어의 글귀가 떠올랐다.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논어』의 「위정」 편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옛날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거기다 새로운 것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위정」)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새로움을 터득해 가야 한다는 뜻으로 취업이라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5년 동안 살아온 참된 나는 누구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기로 했다. 짧다면 한없이 짧고 길다면 한없이 길 수 있는 내 삶에는 반성할 점이 참 많은 것 같다. 공자께서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셨다. 이에 반해 나의 15세 때에는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것은 한참 뒤인 군대를 전역한 후였다. 어린 시절의 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고, 대학도 성적에 맞춰서 왔고 전공도 막연하게 경영학과면 굵어 죽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선택했다. 목표점과 방향이라는 길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로와 꿈

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허송세월 보낸 시간도 꽤 길었다. 한 번은 행정고시를 해볼까 하고 잠깐 공부했었던 적도 있고, 마케팅 쪽에 흥미가 있어서 마케팅 학회에 가입했다 금방 그만 둔 적도 있다. 결국 남들이 자신의 꿈을 좇아 달려갈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허탈한 마음만이 남았다. 나를 돌아보며 반성할 부분이 있는 반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점도 꽤나 있었다. 먼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순간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육체적인 편안함이 있더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편할 지라도 나의 양심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것은 주변에 나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뻐한 것이다. 『논어』 「위령공」 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자공이 인을 행하는 일에 관하여 여쭙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가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연장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고을에 살면서 대부 중에서 어진 자를 섬기며, 선비 중에서 인한 자를 벗 삼아야 한다.” (『위령공』)

아마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자 나를 과거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에너지원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친구들에게 어진 자이자 인한 자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참된 나를 만나보자.

참된 나를 닦기

수신이란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대학』에서는 수신(修身)의 방법

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제시한다. 이치를 탐구하여 앎에 이르고, 뜻을 성실하게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나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그 길을 향해 굳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갈고 닦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표점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물론, 짧게 본다면 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내 삶의 목적이 취업일까?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남는가? 이처럼 취업은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하위목표에 불과하다. 목표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궁극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 그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50세에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우선 40세 때는 덕망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30대 때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보좌관이나 청년 당원 등 정치 관련 일을 하여야 한다. 정치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20대 때 세세한 계획을 세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목표는 단기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 다음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꿈이라 할 수 있을 큰 목표를 세우고 역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수신이라 한다면, 그 첫걸음은 바로 격물(格物)이다.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다는 의미로 현대식으로 해석한다면 목표에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치지(致知)로 앎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는 지식과 능력 개발에 힘써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뜻을 성실히 한다는 성의(誠意)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더라도 소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심(正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목표를 충실히 설정하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히 노력하더라도 그 의도가 악한 것이라면 올바른 수신이 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정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격물치지성의정심의 단계를 거쳐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참된 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밖을 바라보기

수신의 다음은 바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뜻이다. 올바른 모습으로 갈고 닦은 나를 토대로 가정과 주변 지인들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논어』 「위정」 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째서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경』에 ‘효성스럽도다! 효성스러워야만 형제에게 우애가 있고 나아가 정치를 한다’ 라고 했으니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위정」)

효와 제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하면 그것이 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의도적으로 가정과 국가 나아가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리려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성실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깝게는 가족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우선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릇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일을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할 때 창문에 끼워질 두 종류의 유리가 필

요하다. 하나는 서(恕), 이고 하나는 신뢰(信賴)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경미화원이나 건설 노동자들을 볼 때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 이 분들이 없으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서의 마음을 가지고 밖을 바라본다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하고,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끈끈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동(大同)사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인간관계를 받치는 기둥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여 신뢰를 잃게 되면 인간관계는 와르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두 종류의 유리인 서와 신뢰를 장착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정을 잘 가지런히 하고 나아가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능히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답게 – 아아(我我)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최종 꿈을 이루기 시작점을 취업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보다 좋은 사원들을 뽑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소개서이다.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자소서’라는 표현 보다 더 많이 불리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자소설’이다. 이는 진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진 가상의 나를 만들어 그게 마냥 진짜 자신인 듯 글을 쓰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상의 나를 주인공으로 쓰여진 자소설은 허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더라도 면접 전형에 가서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는 순간 글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다. 기업들은 100% 자신들의 인재상과 맞는 인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덜 맞더라도 정직한 사람들을 뽑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소설’이 들통나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사례를 여러 번 들었다. 『논어』 「안연」 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안연』)

바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명론(正名論)’이다.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다운 행동을 행할 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앞서 과거를 뒤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며 수신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정립된 참된 나를 가장 나답게 표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공자님의 말씀을 빌리면 나는 나답게 ‘아아(我我)’인 것이다! 자신에 대한 거짓 없는 정직,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직에 기반을 둔 신뢰, 바로 이것이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보게 해주는 필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류종목, 『논어의 문법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나’를 위한 길 위에서 수신(修身)의 의미를 묻다

서수현 | 경영학과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있다.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한편에서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이기때, 더 나은 자신을 꿈꾸며 일을 하거나, 책을 들여다보며 공부를 하거나, 몸을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즐거운 삶을 누리는 ‘나’를 위해 취미 생활에 힘쓰기도 한다.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발전이 없는, 더 좋지 않은 미래를 꿈꾸지는 않는다. 개개인이 목표하는 나의 미래상, 목표가 다를지언정 더 나쁜 내일이나 나 자신을 어제의 나보다 미숙하게 하려는 사람은 무척 드물 것이다. 모두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은 제각각 다르다. 부와 명예를 획득한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사람, 사교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통해 진리를 얻으려는 학구열에 넘치는 사람 등 ‘되고 싶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나’의 목표상으로 ‘군자’를 제시한다. ‘군자’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의 정신을 겸비한 도덕적 인간상으로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이야기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선뜻 ‘군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참된 나’ 를 위해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공자가 생각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인의예지의 네 요소는 살아갈 때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군자’ 와 내가 생각하는 ‘참된 나’ 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가 추구한 인예지(仁禮智) 그리고 맹자가 중요시한 의(義)는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평가요소가 된다. 나는 얼마나 어질고 너그러운지, 마땅히 할 것을 하고 있는지, 예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의외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매일 학교에 가 성실하게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생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대중교통에서 때때로 자리를 양보하고, 부모님을 도와 가끔 집안일을 돕는다. 밤마다 조금씩 영어공부를 하거나 읽고 싶은 소설을 읽는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동안 티격태격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만 남을 용서할 일이나, 불의를 참고 지나치거나 남에게 무례하게 대할 일이, 그러니까 인의예지를 해칠 일이 거의 없다. 가끔 공부를 게을리 하여 배움의 정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지식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뿐 거의 군자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 온다. 이것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도 없으면, 어찌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로는 <시경>에 있는 이 글귀를 언제나 즐겨 읊었다. 그것을 본 공자가 말했다. “그런 정도의 도가 어찌 그리 훌륭한 것이겠느냐?” (「자한」)

원현이 공자에게 물었다. “경쟁심, 자만심, 불평, 탐욕을 행하지 아니하

면 인(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매우 힘든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현문」)

비교적 평탄하게 사는 학생 시절에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 평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욕구’ 에 직접 관여한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좋은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란 쉽다. 도덕성을 발휘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정적 상황에, 그리고 욕구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앞에 떨어졌을 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지금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의 나는 당당히 도덕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올바른 길을 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큰돈이 눈앞에 떨어져있거나, 누군가가 명백히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평소의 나를 ‘갈고 닦는다’ 함은 즐겁고 안락한 상황에서가 아닌 언젠가 닥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굳게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평소에도 위의 공자의 말처럼, 그저 남을 해치지 않고 흠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논어 제 14편 <현문> 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양을 쌓은 다음 주위 사람들을 편안케 해주어야 하며, 나아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군자이다.

‘어떤 나’ 가 될 것인가에 대해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은 ‘의’ 가 아닐까 생각한다. ‘의’ 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걸어야 할 길로서, 사람마다 가장 상위로 두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논어 제 4편 <이인>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일도 없다. 다만 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 고 얘기했다. 당시 공자의 ‘의’ 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저한의 것은 사회가 제정해놓은 법규이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며,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척 어릴 때 배웠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에 가깝다. 하지만 머리

가 어느 정도 굶은 지금 우리는 법에 절대성을 의심할 때도 있다. 다수의 ‘의’가 모여 법을 만들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논어 제 5편 〈공야장〉을 보면 공자는 형의 딸을 범법자인 남용에게 시집보내며 나라의 도가 잘못 행해지지 않았다면 남용이 형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 말한다. 공자 역시 법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두 각각 다른 의가 있기에 절대적 정의란 것을 정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참된 ‘나’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자신의 안에 뚜렷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해도 본인이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의’와 반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결코 바라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나를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막연히 ‘되고 싶은 나’가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정한 마땅한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이다. 어린 시절은 곧바로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어른이 지지하여 걷는 연습을 시켜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동안 자신의 갈고 닦음이 부족하여 본인이 정한 길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후회되고 분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나를 갈고 닦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 인격자들과 나쁜 사람들에 대해 배워왔다. 불쌍한 이웃 할아버지를 돕는 봉사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친 조상님들에 대해. 그에 반해 이웃을 해한 살인범, 거짓말을 자주 하여 신뢰를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행동과 마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부도덕한 행동과 마음에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타인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불쌍한 이가 눈앞에 있으면 돕고,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행동들은 옳고 그르다는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남이 보는 시선과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결국은 내가 기분이 좋고, 자신이 정한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 때문에, 즉 본인이 정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행동들이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행위가 남의 감사와 시선을 신경 쓴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거래행위로 자신의 ‘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걱정할 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위령공」)

사람이 참된 나로 살기위해 자신이 걸어갈 길을 정했다고 해서 항상 그 길로 곧바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조금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할 테고,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또는 정한 길이 아예 잘못된 길일 가능성도 있다. 본인이 의(義)를 정했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한 길만을 고집하다가 그 끝이 낭떠러지일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신조가 하나 있다.

자공이 물었다. “평생 신조로 삼고 실천해 나갈 만한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서(恕)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위령공」)

사람은 더불어 산다. 하지만 남의 마음, 그리고 의(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쉽게 남이 정해놓은 길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신조는 남의 뜻과 충돌할 경우에만 알 수 있기에, 나의 정의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智)에 대한 노력, 즉 지혜롭기 위해 배우며,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법이 변하듯,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역시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나 혼

자의 사색이 아니라 친구의 충고나, 선조의 지혜나 책으로 얻은 지식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행히 남과 함께 살고 있다. 남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남의 충고를 얻을 수도 있으며 친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공자가 논어 제18편 <이자>에서 “나는 꼭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에 대해 고집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식견을 열어 융통성 있게 참된 나를 형성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있다. ‘날마다 자꾸 진보함’이라는 뜻의 고사성어로 우리가 수신(修身)을 체현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심한 것을 사흘 만에 그만둔다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이다. 매일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참된 내가 되기 위해, 미래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단지 욕구에 대해 중용하고, 행동에 예를 갖추고, 경전을 읽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목표가 부와 성공이 아니더라도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해야 할 노력들이 수도 없이 늘었다. 그 당시보다 나 자신을 ‘무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결심한 것을 삼일 만에 그만두더라도, 흘러가는 일상에 몸을 맡긴 채 안주더라도 그들을 욕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것이다. 누구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신(修身)은 내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며 나를 위해 내가 정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남이 정한 길에 누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남들이 비난할 자격도, 강요할 권리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워 있고 쉬는 도중에도 마음 한편에 조금 더 나은 자신을 그리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작은 동산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건대, 이제 한삼태기의 흙만 더 있으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그만두었다면, 역시 내가 그만둔 것이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에 비유하건대, 한 삼태기의 흙을 운반했다면, 그

만큼은 내가 나아간 것이다. (「자한」)

공자는 위 글에서 아주 조금의 흙을 운반했더라도 그만큼은 나아갔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전력을 다해 뛰어 갈수도, 어떤 이는 아주 조금씩 전진할 수도 있으며 어떤 이는 거의 서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른 길에서 ‘참된 나’가 되기 위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속도의 늦음 빠름과 상관없이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휘 역, 『논어』, 신원문화사, 2006.



나의 수신(修身) 이야기

– 논어의 첫 글자, 학(學) –

서예림 | 경제학과

즐겁게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새로운 동아리를 들었다. 서울지역연합 기타동아리인데 매주 목요일, 토요일마다 신촌 연습실에서 통기타를 연습하는 동아리이다. 다양한 학교와 전공의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친해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먼저 물어보곤 한다. 특히 기존 기수들이 나와 같은 신입 기수들에게 질문을 하며 말을 먼저 건네는데 그들과의 대화는 주로 이렇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 둘이에요.”

“그럼 지금 3학년이겠네요?”

“아뇨. 2학년 2학기예요.”

“재수하셨어요? 아니면 휴학?”

“휴학했어요. 1년…….”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레 휴학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게 되고 내 인생의 암흑기 같던 시간들이 떠올라 스스로도 모르게 침울한 표정을 짓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나는 표정을 숨길

수 없어 미안하다. 이것이 요즘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바로 휴학을 하여 2014년 2학과 2015년 1학기를 줄곧 고시생의 신분으로 지냈다. 스물 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여자라면 누구라도 신경 쓰이기 마련인 외모적인 부분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포기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카레나 비빔밥 같이 간단한 한 그릇 음식을 먹은 뒤, 편한 운동복을 입고 바로 집을 나서서 걸어가며 머리를 말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나올 때면, 행여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 노심초사하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길로 다녔다.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고시반에서도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알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지만 막상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학교의 무리들을 보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와 같이 학교에 입학해서 새내기 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이제 또 전공에 진입한 후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며 전공새내기로 지내고 있었고, 혹은 학과나 동아리의 임원이 되어 보다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부러운 친구들은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이른 나이에 휴학을 한 뒤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보였다. 나 역시도 교환학생이나 다른 대외활동을 합격할 수 있는 학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씁쓸했고, 가장 예뻐 나이에 꾸미지도 못해 억울했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외로웠다. 맨얼굴에 선크림만 바르고 편한 옷에 큰 책가방을 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녔으며 혼자서 밥버거를 먹는 날도 많았다. 또한 학교 생활이나 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상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렇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7월 처음 고시반에 들어가서 처음 본 모의고사 성적은 114/154, 즉 밑에서 40등을 했다. 우리 학교에서 1차를 붙는 사람이 상위 20-40명

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엄청나게 좌절했었다. 옆자리 언니는 작년에 한 번 시험을 치렀는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을 이미 여러 번 본 뒤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공부하고 있자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 거북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후 2주마다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어 76등, 54등을 했었지만 시험이 한 발짝 다가온 9월 말의 시험에서는 123등으로 오히려 처음보다 성적이 떨어졌었다. 그 결과 10월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쳤다. 방에 갇히는 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둔 노트를 몽땅 도둑맞는 꿈,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머리카락이 잘리는 꿈 등이다. 여러 모로 암흑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긴 고민거리 때문에 예전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된 것이다. 또 학교에 복학해서 논어수업을 들으며 배운 내용에 비추어 과거의 나를 다시 돌아보려 일기장을 들춰볼 기회도 생겼다. 시간이 조금 지난 덕분인지 예전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얻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합격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자기계발이 되는 것 같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아져서 주변을 관찰하고 통찰력을 얻는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스스로의 최적컨디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된다.

많은 양을 단기간 내에 소화하기 위해 시간관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외로움을 느끼면서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그 친절함에 감사하게 된다.

2014년 8월 7일

공부만 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학문적인 배움과 더불어 삶의 여러 측면에서도 깨달음을 얻기도 했던 것 같다. 논어의 만 이천

글자를 제일 앞에서 이끄는 것이 바로 ‘배울 학(學)’ 자일 만큼 논어에서는 배움을 중시하는데, 이 속에는 지금의 나를 넘은 더 넓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움이 내포되어 있다. 즉, 학문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글자인 것이다. 학(學)에 몰두했다고 생각했던 지난 일 년이 오히려 참다운 나를 가꾸는 시간, 즉 전반적인 수기(修己)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굳이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휴학하고 시험에 매진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마다 때가 다른데, 나에겐 그 때가 조금 이른 것뿐이었다. 배울 학자로 시작하는 논어의 첫 구절은 이렇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학이」)

‘시(時)’ 자에 주목해서 읽어보면 사람마다 배우는 데에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에 따르면 ‘학(學)’ 도 반드시 때를 갖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 때에 맞추어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황간은 상황에 따라 익힘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삼시(三時)를 말했다. 배움이란 내 몸의 모든 상태에 따라 그 익힘의 형태가 달라지고 (身中時,) 또 계절의 형태에 따라(年中時), 또 하루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日中時) 익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때를 잘못 타서 배우고 익히면 그것도 병이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자주 고민했지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것 같다. 아까 화장실에서 손 닦으며 앞의 거울을 통해 후줄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당장 놀러나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인데 여태껏 줄곧 내 행복을 방해했던 건 ‘걱

1)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1.

정' 이었다. 유난히 걱정이 많은 편이라 항상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당장
놀러 나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걱정하는 중이기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먼저 공부를 해두어서 걱정을 줄이고 노는 편이 낫다.

2014년 6월 26일

이를 보면 당시 휴학을 결정했던 것이 남들보다 빠르다고 슬퍼할 필요
는 없는 것 같다.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 공부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부
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복학해서 주위 친구들보다 한
학년 낮게 다니고 있지만 걱정의 크기가 많이 줄어서 그때의 선택에 후
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공야장에는 강직함과 욕심에 대한 공자와 어떤 이의 대화가 나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군센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정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신정은 욕심이 있으니 어찌 군세라고 하겠는
가?” 2) (「공야장」)

여기서 강(剛)은 체력이 아니라 정신의 강함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서
는 욕(慾)을 물리쳐야 함을 알 수 있다. 10월 26일의 일기를 보니 욕심
에 관해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어쩔 땐 고시생이 모두 수도승 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을 비우고
머리만으로 공부하다보면 무소유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다. 아
무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것만 하고 수수하게 생활한다. 그래도
행복하다. 욕심이 없으니까.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10월 26일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자의 가르침을 완전히 실천하지는 못한 듯하다.
뒷부분을 보면 차마 버리지 못한 하나의 욕(慾)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시생은 사실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지
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욕심만을 남겨둔 것뿐
이다. 오히려 이 점에서 아무 욕심도 가지지 않는 수도승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10월 26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욕심을 가짐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깨우쳐 나만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된다면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고시생의 마음도 사람의 강
직함을 방해하는 욕(慾)이 아니라 수기치인의 수기(修己)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수기를 치인(治人), 또는 안인(安人)으로
실현하려는 마음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니 떨어져 죽을 것 같다. 그래도 이 세상은 나 혼자
가 아니라는 걸 느끼며 살 수 있어서 참 행운이다.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우산을 빌려주신 경비 아저씨. 그리고 혼자 빵을 먹
는 내 주위를 기웃거리며 방긋방긋 웃는 아기까지. 얼굴빛이 어두운 나에
게도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이 시
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받았던
것들을 모두 기억해서 보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2) 같은 책, p.140.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은 어떤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닌 것 같다. 감사의 뜻으로 초코바를 사서 드렸을 때 공부할 때 먹으라며 손사래 치시던 경비 아저씨를 보면 말이다. 어쩌면 내가 그들보다 덜 성숙한 인간이어서 ‘나 먼저’의 마음이 보다 강했던 걸지도 모른다. 원하는 바를 이룬 뒤 한결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나도 그들처럼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6월 25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인 이상에게는 위의 것을 말할 수 있겠으나 중인 이하에게는 위의 것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3) (『옹야』)

공자는 사람의 호학의 차이가 있다고 본 현실적인 성인이다. 이는 상급자와 하급자를 나눔으로써 배움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각자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하급자라도 노력을 통해서 중급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후 깊은 이치를 깨달아갈 수 있음을 내포한 것 같기도 하다. 수험생활 해보기 전의 나는 중급 이하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당장의 과제와 학업에 급급해서 삶을 즐기지 못해 깊은 이치를 얻지 못했었다. 사람마다 배움의 능력에 차이가 있듯이 하급에서 중급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도 각기 다를 텐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학업과 시험의 성취를 통한 마음의 안정이었던 것 아닐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에도 이전보다 관심이 간다. 휴여 학교 앞 테이크아웃카페 앞에서 새로운 후배들과 마주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준 뒤 보내려고 하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고민도 내 고민이 있던 자리에 대신 넣어두고 함께 공감하려고 한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질문에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준다. 또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

을 만나도 대화에 잘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가까운 사람도 많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공부 면에서도 보다 나아졌다. 공자는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수양을 위해서 공부하였으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고 팔리기 위해서 한다.” 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학교의 많은 사람들이 취업 시 유리하기 위해서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나는 원전공 역시 상경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음에도 복수전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순수하게 수업을 들으며 내가 강사님들로부터 시험 위주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며 교수님들로부터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업을 들을 때마다 무작정 외웠던 내용 사이사이의 빈틈이 채워지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한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글을 마무리하다보니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촌 연습실에 가서 나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을 받아도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일 년을 휴학한 뒤 공부를 했으며 이 시기는 ‘참된 나’를 이루는 값진 수신(修身)의 시간이었다고 말이다.

〈참고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3) 같은 책, p.193.

『논어』에서 찾은 3A -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하여 -

서현우 | 전자전기공학과

내가 살아가는 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3A’였다. 내가 이 ‘3A’를 나의 기준으로 삼게된 계기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이런 사람이 함께 일하고 교류하기가 좋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들을 추리고 모으다 보니 이 나만의 ‘3A’가 만들어진 것이다. ‘3A’가 무엇이나면 바로 ‘Ability’, ‘Attitude’, ‘Appearance’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세,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평가하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항목들을 계발시키며 나를 평가해왔다. 소위 말하는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나의 기준이 되었다. 내가 나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본이 되었다. 이 기준은 굉장히 날카롭고 목표지향적이라 나에게서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하였다. 그러나 논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이 수신(修身)-참된 나 이루기라는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더욱 구체화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A’는 바로 ‘Ability’였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현대사회에서 능력이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성적이고 학점이다. 그러다보니 고지학자위기(古之學者爲己), 금지학자위인(今之學者爲人)¹⁾라는 말처럼 나 자신의 개발을 꾀하고 나를 이기기 위해 공부를 하였다 라기 보다는 그저 학점을 잘 받고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를 하였던 것 같다. 공부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호학(好學)의 경지²⁾는 나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사실 아직도 호학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한 공부의 의미인 자신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터득하는 과정으로서의 공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런 진정한 공부가 결국은 절대적인 Ability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내가 완성이 되어 그 중심이 단단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인간(人間)은 타인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없이는 살기 힘들다. 그러나 그 순서가 타인의 평가에서 나 자신의 만족과 공부 그 자체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바뀐 나의 첫 번째 ‘A’이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A’는 Attitude이다. 이전의 나의 자세는 바로 성실함과 이성적 판단이었다. 하나를 꾸준히 그리고 꾀부리지 않고 몰두하는 성실함 그리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균논어 책을 읽다보니 중용에서

“기쁨·성냄·슬픔·즐거움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발현되어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화(和)라 말한다. 중용이란 천하의 큰 근본이며, 화란 천하의 두루 통하는 도리이다. 중과 화에 이르면

1)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p.277.

2) 같은 책, p.280.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제대로 자란다.”³⁾ (『중용』)

고 하였다.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무조건적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출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나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막으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꾸준하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면 성실이 아니라 미련함이라는 것이다. 나는 군대를 가기 전에 매우 똥똥했었고, 그래서 운동을 하여 살을 뺐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살이 다시 찌는 것이 싫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운동을 억지로 그저 꾸준함을 위하여 운동하지 않는다. 내가 운동을 하며 느끼는 뿌듯함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자신감을 위하여 운동을 하게 되었고 진정한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자세,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몰두하는 성실함으로 나의 ‘Attitude’가 바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뀐 나의 ‘A’는 바로 Appearance이다. 그 이전의 나의 Appearance는 그저 외모였다. 나를 가꿀 줄 아는 것, 나를 꾸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모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Appearance라는 단어 자체에는 외모라는 뜻도 있지만 드러남, 드러나다라는 뜻도 있다. 단순한 외모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남이라는 것은 유학(儒學)에서 유(儒)가 의미하는 것처럼 ‘유(流)’, ‘유(濡)’, ‘윤(潤)’ 부드럽게 젖어들 듯이 흘러가는 것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의 드러남이라는 것은 자신이 억지로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일종의 아우라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읽었던 것은 아니지만 향을 쐬던

종이와 비린 생선을 쐬던 종이는 버려지고 나서도 그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 쓰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라는 뜻이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다른 것은 바로 풍겨져 나오는 향기는 결국 자신이 내뿜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겨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나를 포장하려고 노력하여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Appearance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드러남을 논어에 있던 ‘친친이 애인(親親而愛人)’⁵⁾이라는 말처럼 주변사람들을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씩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 조금의 변화가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외모를 바꾸고 나의 총체적인 드러남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 것이 내가 재정립한 ‘Appearance’이다.

이렇게 바뀐 나의 새로운 ‘3A’는 이전의 기준과는 다르게 나에게 불안함과 걱정보다는 평안함과 안정을 주고 있다. 날카롭고 목표지향적이기 보다는 침착하고 내제적인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에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수신(修身)’이라는 한문 자체가 나를 닦는다는 것이다. 내안에 있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닦아내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수신이라는 나름의 결론에 이르렀다. 새롭게 정리된 ‘3A’가 이 수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기준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섰을 때,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들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굳건한 기준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3A’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4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 지가 얼굴에 표정에 주름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릴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나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가?

3) 같은책, p.88.

4) 『설문해자』를 보면 ‘유(儒)’는 유(柔)·유(濡)·윤(潤)이라고 설명

5) 같은책, p.81.

라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근원적인 물음에 나에게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기준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근원적인 물음이 떠오를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이 '3A' 로 나를 다시 평가해 보아야겠다. “지금 사람들은 책을 읽을 줄 모른다. 예를 들어 『논어』를 읽을 때, 읽기 전에도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곧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구절이 성균논어 책에 인용되어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각이나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 매우 신기하고, 그 구절구절이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곱씹고 읽으며 그 깊이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의 변화를 꾀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다짐으로 ‘수신(修身) – 참된 나 이루기’ 에세이를 이만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 장 려 상

실패를 수양의 기회로 삼자

엄규동 | 전자전기공학부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유교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유교적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뜻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본적 소양을 가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심지어 요즘에는 취업을 대비하며 글씨체를 교정하거나 얼굴 표정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학원까지 생겼다고 하니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 반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이다. 『논어』 「학이」에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공자는 「학이」 편에서 군자의 수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어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忠)과 신(信)을 주장으로 삼으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 참된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갖고 닦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속담이 있다. 어렸을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속담이다. 이 속담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극복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 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진다. 그 만큼 성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참된 나를 이루기 위해서 실패가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닐 암스트롱이 1969년 달에 깃발을 꽂기 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이다. 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갖고 닦음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참된 나의 모습을 이루게 도와준 내 인생속의 실패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실패는 중학교 3학년 시절 경험하였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였고, 부모님 덕분에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다. 『논어』 「학이」에는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추어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람직한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었다. 성적 면으로 항상 승승장구 하다 보니 개인적인 목표를 크게 세웠다. 당시 공부를 좀 한다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학원에 다니며 준비하였다. 사실 학원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학원에서도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날이 다가오고 전주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차 안의 나는 자신감에 가득한, 자만심도 섞여있는 나였다.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고, 시험 결과를 받은 날 기대 되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자만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성적은 정말 최악의 성적이었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펄펄 울고 말았다. 심지어 나보다 항상 낮은 성적을 받던 친구들은 합격하였지만 나만 떨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실망감이 컸다. 그 실패는 어린 나이에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나는 공부를 할 때에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

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다. 오로지 결과만 바라보며 공부를 한 것이었다. 『중용』의 20장에 보면 “널리 배우고,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사고하고, 명확하게 변별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실패를 겪고 난 후 변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더 이상 공부의 목적이 시험이 되도록 하지 않았고, 학문에 대해 신중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변화를 겪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원래의 나는 자만심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실수 또는 잘못을 타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타인을 원망하곤 했다. 그러나 실패를 겪고 난 뒤에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다. 『논어』 「위령공」에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말처럼 실패의 원인을 찾던 중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대장부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작은 성공에 집착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노력에만 고집을 부리던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인지 깨닫게 되었다. 대장부의 마음으로 ‘박수칠 때 떠나라’ 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친구, 가족, 건강 등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춘기 어린 시절에 겪은 실패의 경험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충격을 통한 반성과 성찰이 참된 나의 모습의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실패는 고등학교 시절 경험하였다. 사실 이 경험은 실패의 정의만 바라보았을 때에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겪은 내적 갈등과 성찰로 얻은 것들을 생각하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첫 번째 실패를 겪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대신 진학한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다.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잠과 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 밖에서 혼자 산다는 생각에 신이 나있었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니 생각보

다 힘든 점이 많았다. 한 방에 14명이나 되는 친구와 함께 잠을 자려니 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도 많았고, 학교에서 힘든 점이 있어도 기댈 부모님이 없었다.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각하던 중 많은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힘써 주셨다.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나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듯 알며 생활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효와 공경은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니 부모님의 소중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갔다. 『논어』 「학이」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리가 생긴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말처럼 효도와 공경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인데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었다.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효도와 공경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었다. 그렇게 2주마다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놀기만 하던 나는 집안일을 도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집 밖에서의 생활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커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었다. 유학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 가족이나 혈육을 사랑하는 ‘친친’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애인’ 까지 확장한다고 말하였다. 14명의 친구들과 한 방을 쓰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논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를 자신과 주변인에게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향이 다수가 생활할 때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모두가 하나된 가장 이상적 상태를 ‘지이지선’ 이라고 한다. 기숙사에 살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지이지선’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배웠다. 서로의 갈등 가운데 ‘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겪게 된 집 밖의 기숙사 생활은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하였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며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사회

적으로 군자의 소양을 갖고 닦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성찰은 참된 나의 모습을 위한 큰 경험이 되었다.

세 번째 실패는 군대 시절 경험하였다. 한국 남자라면 대부분 가는 군대이지만 이 군대도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내가 복무한 곳은 총 40명의 인원 정도가 복무하는 부대였다. 그러나 간부 몇 명에 병사가 다수인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간부 삼십여 명을 보조하는 십여 명의 병사가 있는 역 피라미드 구조의 부대였다. 평소 생각하면 군대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하며 힘든 점이 매우 많았지만 배운 점이 더 많았다. 이 시절은 개인적으로 내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가장 실패했던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만큼 성찰하며 갈고 닦은 것이 많았다. 군대는 작은 사회라고도 한다. 이 말처럼 군대는 수직적 구조를 가진 집단 중에서도 가장 딱딱한 집단이다. 이런 구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이곳에서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예”였다. “예”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 이라는 뜻인데 윗사람의 꾸중을 불평불만만 하다 보니 계속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던 중 윗사람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었다. 『중용』의 20장에 보면 “혈연의 정도 차이에 따른 단계적 구분과 현명한 이를 차례대로 높이는 등급에서 예가 생겨난다.” 라고 하였는데 혈연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아니라도 계급사회에서 가장 중요 “예”를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간부보다 병사다 매우 적다보니 병사 한 명당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다. 이것은 책임감을 키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공자는 “진실과 믿음을 주로 하라” 군자답게 살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문하였다. 책임감을 키우며 자연스럽게 성실, 진실,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효”와도 연결되었는데 『논어』 「선진」에서는 민자건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에 충실한 모습이 진정한 효의 모습 중 하나라고 말하였고, 책임감을 겸비한 성실한 모습은 자신의 모습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부모님은 군대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전역 한 후에 학교나 직장에서도 맡은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맡은 역할에 대한 충실을 강조하셨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생활하였으니 이 점을 보면 “효”와 연결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계급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며 후임 병을 받고, 결국 후임 병들은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리더의 자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자리였다. 후임 병들은 모두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겪기 마련인데 내가 후임 병이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 선임 병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었던 것을 생각했다. 『논어』 「위령공」을 보면 “이 고을에 살면서 대부 중에서 어진 자를 섬기며, 선비 중에서 인한 자를 벗 삼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후임 병이 자신의 맡은 소임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질고 인한 벗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더의 자리에서 후임 병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어진 벗이 어떤 모습인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웠다. 군대 시절은 어느 정도 인격이 결정된다는 사춘기 시절을 훌쩍 지난 성인의 나에게 많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매 힘든 순간들은 실패였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 고민했던 것들은 참된 나를 가꾸기 위한 과정이었다.

내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실패가 있다. 그것은 중학교 시절의 실패, 고등학교 시절의 실패, 군대에서의 실패이다. 이 실패들은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서로 다른 교훈을 주고, 성찰을 하게 도와주었다. 참된 나의 모습을 위해 이 실패들은 내 인격을 수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단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라는 뜻이다. 이 중에서 수신(修身)은 자신의 몸을 닦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인격이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 가지 실패의 과정은 수신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가치관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겪게 될 일이지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 큰 내적 갈등을 겪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실패는 부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수신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고, 허물이 있다.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신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한 수신은 나의 허물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참된 나의 모습을 가꿀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는 실패를 통해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 기사가 실린다. 주로 이 원인은 사업 실패 비판, 물질적 성공의 실패 비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의 공통점은 실패이다.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실패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를 통한 수신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좌절하는 사람들도 참된 나의 모습을 가꾸고 나쁜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참된 나를 가꾸기에 힘쓴다면 우리 사회는 인, 의, 예, 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참된 나 이루기

이해든 | 신소재공학과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힘이 들 때,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 행복해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참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게 된다. 감정의 주체는 스스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불행의 감정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날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고민하며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자세도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부지런한 자아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더 자주 더 많이 가질수록 참된 나에 다가가게 된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참된 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특징들은 스스로가 참된 나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첫째, 나는 ‘나의’ 꿈이 있는가? 꿈은 자아성찰의 결정체이다.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야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다. 자아성찰을 게을리 하게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살고 보게 된다. 삶에 대한 애착이 꿈꾸는 사람보다 덜 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바람이 아닌 주체적인 꿈이 있어야 현재의 삶을 즐기며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 하였다.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반듯이 가까운데 걱정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꿈이 없으면 자주 슬럼프에 빠지고 회의하길 반복한다. 꿈을 가지면 슬럼프를 극복할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가지게 된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바람도 꿈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특별한 것 또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대부분은 보통의 범주에 포함된다. 많은 꿈들은 객관적으로 평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지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다.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 하였다. 이분처럼 건강한 삶의 유지가 꿈인 분에게는, 직업은 꿈을 위한 수단이 된다. 몇몇 사람들은 어릴 때 꿈을 정한다.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편중된 흥미요소를 가지면 꿈을 가지기 비교적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능과 관심요소는 평범함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평범한 꿈을 희망한다면 그 평범함을 인정하면 된다. 공자도 현실적으로는 평범하게 살았다. 다만 평범한 삶에 충실하며 기본을 잘 지켰기에 남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별 다를 것 없는 삶이라도 그 속에서 충실히 산다면 그것 또한 참된 나를 이루는 과정이다.

꿈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 평소 의를 가까이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꿈을 찾는데 기반이 되는 자기이해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된 자기성찰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은 일생동안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성장하면서 자아가 조금씩 변한다. 공자는 이를 군자불기(君子不器)라 했다. 한 재능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펴 변하는 자신을 성찰해 원만히 사는 것이다. 따라서 꿈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변하는 자신을 끼워 맞추며 억지로 살지 말

고 평생을 자기성찰 해야 한다. 꿈을 찾는 것은 어쩌면 평생의 숙제일 수 있다. 단지 사사로운 걱정애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며 살면 되는 것이다. 참된 나로 사는 인생은 방향성이 있다.

둘째, 나는 실제로 행하는가? 마음을 살펴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된 나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그것의 실현은 행동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을 먹는 즉시 실천을 하는 게 좋다. 미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용기가 부족하거나 게으르거나 자만한 이유 등으로, 행동이 유창한 말을 따라가지 못 할 때가 있다. 언행일치는 중요하다. 자아실현에 있어서, 그리고 모순되지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공자 또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논어에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라 기록되어있다. 옛날에 사람들이 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 즉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된 나를 탐구하는 것이 참된 자신이 되는 것에 다가 아니다. 탐구를 했으면 실현해야 한다.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행동력을 갖추자.

실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베인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굳건한 다짐을 하고나서 작심삼일인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자책하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한다. 주위를 보면 체중 감량의 목표를 가진 사람,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처럼 그때그때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많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력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운동보다 식이요법에 중점을 두어 안 먹고 살을 뺐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적당히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며, 성실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기도 하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방식 또한 전자에 언급 했듯 저에게 알맞은 것을 충분한 자아성찰을 통해 스스로 찾아져야하는데, 그 방식을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나 목표를 향해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꿈을 그리면

참된 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행하는 것이 좋다. 사회 속에서 혼자만 참된 나로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향을 미치려던 의도가 없었던 행동도 누군가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 공자도 혼자 배우고 덕을 얻으며 참된 자신을 이룬 것이 아니다. 많은 제자를 두었으며 여러 인물들에게 두루 배워서 덕을 쌓고 수신하여 제가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논어에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란 말이 있다. 덕필유린으로도 쓰이게 된 이 말은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배움에 큰 뜻을 두어 주나라로 가서 노자를 찾아 뵈어 예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일생을 교육자로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 보냈다. 이렇게 관계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 바른 상호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덕을 쌓고 참된 자신의 삶을 사는 인생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할 수 있었다.(선행기언 이후종지 先行其言 而後從之) 공자처럼 자신이 주체가 된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 참된 나를 이뤄갈 수 있다.

셋째, 나는 절제하며 살고 있는가? 장기적으로 참된 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를 절제하는 것은 필수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와 상응하여 공자는 제약된 생활을 해서 실패한 사람이 적다는 뜻의 이약실지자 선의(以約失之者 鮮矣)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역사에 남은 많은 위인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 에디슨은 하루에 잠을 4~5시간 자며 공부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연예인 전지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복상태로 운동을 3시간하여 많은 여성들의 롤 모델이 되었으며 로버트 아이거(디즈니 CEO)는 주말에도 긴장을 완전히 풀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 생리학적으로도 식사량을 절제(소식)하면 활성산소량이 적어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유흥을 자제하고 노력하여 비교적 목표에 다가가 본 경험을 가지고 절제의 중요성을 자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

는 습관을 쉽게 잇는다. 참된 나는 꾸준한 절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참된 나를 이루는 사람은 의욕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다.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스트레스 풀이용 게임도 과하게 하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대다수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넘치는 열정, 에너지, 의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간과하는 것 같다. 오히려 청춘에게는 과한 에너지를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이나 욕구가 크면 클수록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주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성향(열정, 에너지, 의욕)이라 할지라도 절제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소 운동을 잘 안하고 폭식이 습관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여 1일차에 넘치는 의욕으로 식사량을 1/3로 줄이고 운동을 4시간 한다면, 그 다이어트는 오래 유지될 확률이 낮다.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뿐 아니라 빨리 지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악화될 위험도 있다. 무리하여 실행 초기에 집중력과 체력을 탕진하는 것보다 적정선을 파악하여 꾸준히 긍정적인 성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정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금방 식지 않고 장기적으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참된 나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며 절제력을 기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걸 알아야 한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절제하지 못했을 때 자기비하에 빠져 꿈과 참된 자신을 잃을 위험이 적다. 자신의 부족한 절제력이 선천적이며 개선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속단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절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노력하여 절제력을 기르면 된다. 절제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꿈과의 괴리감에 대개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때 자책의 감정에 빠져 절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혹에 처음부터 강인한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나태는 생명력이 강해서 절제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속하여 노력해야 한다. 뛰어난

수준의 절제력에 못 미친다고 좌절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보다 나은 절제력을 가지게 되면 충분하다. 그리하여 점차 스스로 발전하게 되면 참된 나를 이루게 된다.

이때까지 참된 나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로, 참된 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가진다. 그 꿈은 평범할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자신과 함께 바뀔 수도 있다. 꿈은 인생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삶에 주인의식을 부여하는데 충분한 자아성찰이 밑바탕 된 꿈은 참된 자신을 찾게 한다. 둘째로, 참된 나를 실현하는 사람은 행한다. 꿈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며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실천하면서 참된 나를 실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 참된 나를 이룬다. 자신에게 알맞은 정도의 의지와 열정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절제력을 기르는 것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참된 나를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듯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높은 성취감을 어떤 때에 느끼는지, 세계적인 명성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큰 고민 없이 답을 내린다. 갈등관리를 원만히 하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가정, 직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때, 성실과 노력이 만든 작은 성취가 쌓여 얻게 되는 세계적인 명성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참된 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참된 자신이 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는 선뜻 답하는 사람이 잘 없다. 참된 나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개인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생활은 거리를 두며 다른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고 사회문화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이루는 삶은 타인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생활이기에 일대기를 먼저 볼 수도 없고 거리를 두기도 힘들다. 본래 자신이며, 익숙하기에 지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자주 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들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다. 전문에서 참된 나를 이루는 과정을 탐구하며 특징을 살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그 과정에서도 노력하는 순간에도 흔들릴 수도 있다. 흔들리는 자신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신을 믿자.

“인이 멀리 있단 말인가? 내가 인을 바라면 인은 곧 나에게로 다가온다. 참된 나는 멀리 있단 말인가? 참된 나를 이루고자하면 참된 나는 곧 이루어진다.” (「술이」)

〈참고문헌〉

김영 평역, 『논어』, 청아, 2014.



• 장 려 상

내 눈 속의 들보

이희로 | 러시아어문학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문을 나가서는 마치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마치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해야 한다.”¹⁾ (「안연」)

위의 두 구절은 각각 성경과 논어에서 발췌한 것으로,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과 논어에는 서로 비슷한 뜻을 담은 구절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균 논어’라는 강의를 수강하며 느끼게 된 수신(修身)의 의미를 기독교적 가치관과 접목하여 논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과 깨달은 바를 논하고자 한다.

사실 논어를 수강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의 신앙과 반대되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동의하기 힘든 내용을 배워야 할 수도 있고, 바탕이 되는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민하였다. 어린 나이에

1) 이강재, 『논어』, 살림, 2006, p.236.

기독교인이 된 이후 줄곧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성경이 아닌 동양철학을 공부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공자나 논어는 내게 무척이나 생소한 것이었다. 게다가 유학은 공자와 맹자의 학문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유교'라는 종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균 논어는 필수 수강과목이었고 내가 태어난 우리나라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히 책상에서 토론하는 학문으로만 공부하리라 결심하고 항의하지 않고 수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생소했던 것은 그 내용과 신념보다는 오히려 한자였다. 같이 강의를 듣는 학우들은 이미 아는 한자인 것처럼 익숙하게 필기하였으나 내게는 아직 배우지 않은 한자들이 더 많았다. 강의의 내용은 생각보다 생소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윤리 과목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 내용이 종종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그 의미를 풀이하고,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일은 나에게서는 완전히 처음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기독교 사상을 배우는 '종교' 과목에서 했고, 대부분의 경우 윤리 과목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구절들을 외우고 그 개념의 이름을 암기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논어의 구절을 배우면서 나의 생활을 떠올리고 반성하던 순간은 나에게서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다'는,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논어로 남겨진 공자의 사상과 실제 삶을 알면 알수록, 나의 마음 또한 그의 가르침에 동감하고 있었다. 차츰 그의 사상도 인간의 삶을 포괄하여 어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흠없이 도덕적인 그의 삶을 접하였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과 그 교제는 세속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다. 사실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한정 겸손할 수 있던 분은 그리스도뿐일 것이다. 나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의 불화와 다툼 또한 목도해 왔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교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불화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왔지만 죄인 된 인간으로서 지닌 한계라는 근원적인 답밖에는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긴다.' (「위령공」)²⁾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나는 내가 아닌 바깥에서만 문제를 찾고 원인을 구하였기 때문에 문제에 바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나에게서 되돌려 구하는 것으로 생각의 물꼬를 트니,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달아 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은 성경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부하고, 어떤 분은 대대로 신앙 있는 집안이라 자부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성공이나 경험이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모두 자신의 장점만을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므로 어떻게 참된 교제가 되겠는가? 나는 이런 분들과 교제하려 할수록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생각하여 멀리하였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에베소서 4장 2절)' 라고 교회 내 인간관계의 지침을 제시하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절) 고 하신 말씀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했기에 분명히 적용해야 할 곳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형제, 매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예수님을

2) 이권호, 『한글로 통하는 논어』, 새문사, 2011, p.257.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타종교인이나 무교인 분들을 전도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교회 안의 교인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주된 관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라고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분들만을 떠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전도하고 싶은 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경청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8절)고 하셨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다. 따라서 극히 힘든 상황에 놓여 마음에 세속적인 고통이 가득한 사람에게 애정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과는 별개로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작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흠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깨닫던 순간은 앞서도 언급한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긴다.’³⁾(「위령공」)는 공자의 성찰이 무계를 얻던 순간이었다. 나의 이러한 행위는 남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슬프지만 변화를 기도하면서 성찰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자는 ‘자기를 나무람을 엄격히 하고 남을 나무람을 가볍게 하면 자연히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⁴⁾(「위령공」)고 하였다. 이 간단한 원리를 나의 인간관계, 교인 분들과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 이권효, 『한글로 통하는 논어』, 새문사, 2011, p.257.

4) 이강재, 『논어』, 살림, 2006, p.292.

그러려면 이전에 교인들을 생각으로 비판하였던 나의 마음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고 말씀하셨다. 수강할까 말까 망설였던 논어를 공부하면서 눈 속의 들보를 깨닫게 되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한 논어를 공부하면서 나의 비전과 미래에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강직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준 벼슬도 있으며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있다. 사랑, 정의, 충실, 신뢰와 선을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다. 반면에 공, 경, 대부 등은 사람들이 주는 벼슬이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벼슬을 갈고 닦음에 사람이 주는 벼슬이 뒤따라 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닦아서 사람들이 주는 벼슬을 구하고, 이미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으면 하늘이 준 벼슬을 내다 버린다. 아주 잘 못된 것이며 마침내 반드시 망할 것이다.”⁵⁾(『맹자』 「고자상」)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나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에 이상하게 생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삶에 반드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20절)

이 구절은 사람이 준 벼슬(세상의 가치)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천직, 하늘의 가치)을 내다 버리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맹자와 그

5) 김학주, 『맹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494.

아모르 파티(Amor Fati)

조영규 | 경영학과

의미가 서로 통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즉,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맹자가 말한 천작이 기독교적 의미의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닐 것이다. 맹자가 뜻한 바는 권력, 지위, 부귀 등보다 사랑, 정의, 충실, 신뢰와 선을 좋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사랑, 정의, 충실, 신뢰와 선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는 점이 다르다. 취직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은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학을 배우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경험이었다.

이처럼 논어와 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유학 등 기독교와 다른 사상에서 삶의 지침을 얻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 역시 그 사상에 동감하였고 그로부터 성찰과 사색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가 아니었다. 논어를 공부하면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두 가지, 나의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갈고 닦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도 들어본 바이지만, 내 실생활과 교인들과의 관계를 사유하면서, 살면서 끝없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서 나온다는 점은 새롭게 깨달은 바이다.

〈참고문헌〉

이권호, 『한글로 통하는 논어』, 새문사, 2011.
이강재, 『논어』, 살림, 2006.
김학주, 『맹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아모르 파티는 운명애(運命愛)라고 번역됩니다. 니체에 의하면, 운명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간에게 닥쳐오지만, 이에 묵묵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창조성이 없고, 오히려 이 운명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¹⁾ 제게 있어서 수신(修身)이란 내 운명을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저는 제 운명을 따르다가도 또 그 운명을 거부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내 의지에 관계없이 그것을 따른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내 노력에 따라 개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척할 수 있는 운명이 전부가 아니며 개척할 수 없는 운명도 존재한다는 입장도 동시에

1) [네이버 지식백과] 아모르파티 [amor fati] (두산백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개척할 수 없는 운명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세계는 개척할 수 없는 ‘운명’이 존재하며 저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면 저는 그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세계 있어서 강요받는 운명을 사랑하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고민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이기에 과거에도 존재하였음을 생각해 보면 공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어에서는 신분과 직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태백」)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합니다.” (「안연」)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못한다.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다. 형벌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자로」)

공자는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분과 직분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논어의 말을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공자는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제 분수를 지키며 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자의 주장의 전부라면 공자는 상하귀천이 계급에 의해 결정되었던 과거에 살았던 ‘꼰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 사상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인 ‘인(仁)’을 곱씹어 본다면 공자의 주장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仁)’의 정신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로서의 의미는 ‘너와 나는 하나이며,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의 정신으로 보면 각자의 지위에서 직분을 다하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인 것입니다. 임금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인 신하를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인 자식을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공자가 생각하기에 위아래의 구분은 무용할 것입니다. 하늘이 준 신분과 직분이 다를 뿐이고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은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는 서로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 또는 아버지 홀로 그 직분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길 만무할 것입니다. 충실한 신하 없이는 충실한 임금도 없습니다. 충실한 자식 없이는 충실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구성하는 공동체를 하나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준 운명에 따라 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팔의 역할을 맡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직분을 망각하여 행동한다면 하나의 몸인 공동체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의 경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존중과 사랑이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내재된 본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모두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을 충실하고 따르도록 주장한 속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 수신의 길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현실에서는 주어진 운명의 경중을 경제력, 권력, 명예 등의 몇 가지의 잣대만으로 구별해 버립니다. 현재 사회는 서로 다른 운명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냉혹하게 줄 세워 버립니다. 마치 계급화, 서열화에 중독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과거에

가시적으로 존재하였던 불공평한 계급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인류의 긴 역사의 말단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이 뿐이라는 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은 형태로 운명적으로 타고난 계급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따라 사람들을 몇대로 줄 세워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는 줄 세우기에 중독되어 제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진 제 운명을 사랑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집안의 경제력 등에 따라 붙이는 다소 열패감 섞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한 개척 할 수 없는 ‘운명’에 속한 것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이 운명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사랑하여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보다는 이 운명에 따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함부로 판단 해버립니다. 타고난 집안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며 부러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집안의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부르며 열등감을 느끼며 좌절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줄 세워 버린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말 마냥 제어할 수 없는 줄 세우기의 중독 때문에 사람들은 소통하지 못하고 인생을 스스로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분명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청년들은 수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본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수신(受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줄 세우기’의 중독을 벗어나고 내면에 숨겨진 본심을 찾아 운명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을 생각해봅시다.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잘나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금융자산을 빌리는 차입자가 있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홀로 생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본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은 자본을 이용할 사람들이 일시에 자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직업에도 경중을 두어 줄을 세워 버립니다. 판검사를 높이 취급하고 농부를 아래로 취급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모두 판검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먹는 양식은 누가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 없이는 판검사 할아버지도 굶어야 합니다. 판검사는 양식을 생산하는 농부에 대해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며 농부도 올바른 판단을 세우는 판검사에 대해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늘이 준 운명적 차이를 인정하되 우리라는 인의 관점에서 그 차이는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의 정신이 상황에 맞게 발현되는 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때로 객관적 한계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마치 도로 한 복판에서 매연과 함께 자라나는 소나무와 지리산 깊은 산 속에서 천지의 운택한 기운을 온전히 받고 자라는 소나무가 애초부터 환경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 한계는 분노의 대상도 극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객관적 한계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선택입니다.²⁾

저는 논어를 통해 제게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열패감을 불러일으키는 줄 세우기라는 비교 행위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마치 침팬지와 감자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침팬지와 감자는 염색체 수가 48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너와 나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서로가 가진 개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방심하는 순간 어느 때라도 본심을 잃어버리고 저 스스로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책할지도

2)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신의 실천방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1. 글쓰기 :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될 때 저는 제 마음을 글로 적곤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방황하던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됩니다. 글의 내용은 아무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어떻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갑니다.(저는 심지어 욕도 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기에 마음을 그린다는 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한바탕 쓰고 나면 다시 자신의 운명을 끌어안을 용기와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2. 인으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 공자가 어진 이와 벗하라고 말하였듯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아무하고나 함께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라는 인의 정신이 느껴지는 어진 사람과 함께한다면 마음이 진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도 될 수도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의 목적은 대화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히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3. 청소하기 : 생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행동이 먼저입니까? 사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하여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또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억지로 웃는 행동을 취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면 내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인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행동이 무엇을 정리하다보면 마음도 같이 정리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수신(修身), 매 순간 되돌아보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조해민 | 글로벌경영학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대답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이름과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전공 등으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때, 대외활동에 지원할 때 등,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나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곤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나와 지금의 나는 별다를 것 없이 항상 이 질문에 머뭇거리고,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동안 무엇을 열심히 했나 돌아봤더니, 21년 동안 제일 열심히 했다고 떠오른 것은 공부였다.

중학교 때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은 학점을 잘 따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나의 대부분의 삶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삶을 이루는 공부를 왜 하고 있냐는 물음을 논어 시간에 받은 적이 있다. “공부를 왜 하는가?”라는 영상을 시청했는데, 대

부분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부모님의 기대, 좋은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아져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단순히 부모님이 시키고, 남들도 하니깐’라는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나 또한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고민, 공부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전혀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 없이, 그저 기계처럼 모두가 하니깐 나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할 ‘수동적이지만, 뚜렷한 목표’는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중학교 때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해야지, 대학교 때는 내놓아라 하는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진학해야지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그저 공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공부는 목표를 이뤄주는 도구일 뿐, 이 공부 자체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도 너무나 단순했다. 외고에 가야지 좋은 대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지 좋은 곳에 취직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배경에는 부모님의 기대,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 사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라도, 목표가 있었기에 중, 고등학교 때의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 했다. 목표의 이유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꼭 이루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를 단련하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간의 관계에서의 부족함이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지는 않았지만, 영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오늘은 어느 공부를 많이 못했고, 여러 번 시험을 치면서도 내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단련시켰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채찍질 한 결과, 지금 성균관대에 왔지만, 대학교 1학년때는 많은 방황을 했었다. ‘수동적인 목표’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다는 점이

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노력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단 시간표를 만드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모두 짜인 시간표에 단순히 그 시간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인데, 그 시간이나 수업의 내용까지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나 정해진 반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더 방황을 했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흔히 모범생이라고 불리던 나였는데, 어느새 나는 교수님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저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지루해하며 스마트폰 만을 바라보는 학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성균관대를 정말 오기를 바랐고, 내가 글로벌경영학과를 오고 싶어했던 이유는 이 전공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고, 성균관대 학생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높은 학교, 높은 학과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전혀 경영에 관심도 없었고, 모든 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감까지 들었다. 내가 왜 이 과를 선택했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때부터 생각했다. 모든 낯선 환경들이 두렵고, 과분하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낯선 상황에서 나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나를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남들 하는 것만을 급급해하며 따라갈 뿐이었다. ‘왜 나는 빨리 이해를 못하고, 회계를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지?’ 등에 나의 능력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부를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능력의 문제라고 한정 지으면서 자책할 뿐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수동적인 목표’의 한계가 대학교에 와서 ‘자유’를 만나면서 그 의미를 잃고, 진정한 목표나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끔 했다.

1학년이 끝나고, 이러한 점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순간

에 집중하지 못했고, 무엇도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남은 건 ‘후회’였다. 삶에 대한 만족 보다는 모든 방면에서 ‘후회’가 남았고, 그 때부터 ‘후회하지 말자’라는 평범하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토를 만들었다. 그렇게 가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던 대학 생활이었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했다. 또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안일한 모습만을 보이는 것에 너무나 실망을 했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보이면 평소에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한 나였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고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대학에 와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보였다. 고등학교 기숙사와는 다르게 훨씬 자유로워진 기숙사 생활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는 별 애기도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야기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럴 때만 자유를 내세워 내 마음대로 해버렸으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집에도 자주 찾아가지 않고, 동생들에게도 바쁜 척 하는 대학생으로 굴 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들에 되돌아보니 후회가 남고, 많은 잘못을 한 나였지만, 이러한 잘못과 후회까지도 감싸줄 친구들이 있었기에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대학교 생활이 외로울 때면 항상 먼저 찾게 되는 건,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었다. 그들만은 내 진심을 다 말하고, 내 고민을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터놓고 얘기 했었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대학에 와서 자유로우면서도, 외롭다고 느꼈다. 고등학교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이 있지만 더 외롭고, 모두가 바쁘고 알차게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나 싶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내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과 그래서 낸 결론은, 일단 남들

과 비교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에 평소 좋아하던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도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불안감과 공허함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또한 나는 2학년이 되면서 기숙사에서 보내던 자유롭지만, 공허했던 생활을 통학을 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럼으로써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에게 대한 생각도 하고자 했다.

그래서 2학년이 시작한 후, 1학년 때를 되돌아 본 결과, 새로운 목표를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자’로 세웠다. 이는 논어 수업을 들으면서 더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왜 내가 논어라는 필수교양을 들어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논어라고 떠오르면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에 공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현대상황과 뭐가 얼마나 연관이 있다고 모두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지 불평불만을 하던 나였다. 하지만, 첫 수업을 듣자마자 이러한 인식이 바뀌었다. 논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다. 공자는 끊임없이 인간과 삶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했다. 이러한 점은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지 않는 나에게 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사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성균관대에 와서 ‘정말 내가 성균관대 학생이구나’라는 점을 처음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된 시간이 되었다. 초대총장님의 심산 김창숙 선생이시며, 누구보다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족 성균관대 학생들이 있었으며,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성전을 열 수 있는 성균관대뿐이라는 것 등 성균관대만의 브랜드가 확실히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논어는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을 첫 시간에 딱 와 닿았고, 처음으로 단순히 높은 대학교가 아닌 ‘성균관’의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진 시간이었다.

첫 시간 이후에도, 공자와 논어의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한 번에 완전히 삶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앞

서 말했지만 “왜 공부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이었다. 한국 인들은 현재 사교육 시장에 나와서 단순히 부모님 혹은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나를 위한 공부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 때, 논어의 한 구절이 정말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즉, 위기지학이 아닌 위인지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공부 자체에 대한 즐거움인 호학(好學)이나 발분망식(發憤忘食)을 느껴본 적이 없다. 단순히, 공부하는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수단으로써의 제대로 된 수치에 이르렀을 때, 즐거움과 뿌듯함의 정도이고, 심지어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논어 수업을 듣고, 공자의 호학(好學)의 정신을 보며 내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봤고, 한 번도 공부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지까지 오른 적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또한 그 동안은 공부를 그저 나 혼자 영어단어를 외우거나 회계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라고 한정 지었다. 수업시간에는 그저 스마트폰을 하며 교수님과 소통하지 않았으며,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관계는 소홀히 하기 일수였다. 하지만 공자는 학문을 넘어서서 사람과 삶 자체가 모두 공부라 생각하였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순간에 집중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겼으며, 이 모든 것이 학문이라 생각했다. 또한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학문소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 만남 등 이 모든 점들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 만이 남들과는 다르면서도 모두가 진심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논어 수업을 듣고부터는 내 모든 순간에 대해서 생각

해보기 시작했다. 집에 가면 그저 피곤해서,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문을 닫고 들어가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않는 모습, 수업시간엔 그저 딴짓하기 바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보단 그저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 남자친구와 싸우면서 항상 상대방 탓만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질타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모든 순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순간,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순간은 공자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책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간의 관계와 만남, 그 모든 순간을 말한다. 그래서 수업시간에는 최대한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친구들과 얘기하고 웃으면서 소통하고, 부모님과도 귀를 막고 핸드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뭐했는지 얘기를 먼저 꺼내고, 동생 방에 먼저 들어가서 뭐하냐며 공부 힘들지 않냐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굳이 꼬투리 잡으며 화를 내려 하지 않고, 그저 다른 부분이겠거니 하며 좋은 점에 더 초점을 맞추며 조금씩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학과 취직 후, 결국에 최종적인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나왔지만, 과연 이러한 과정 속에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종적인 목표인 행복과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어우러지지 않는 상반된 모습일 띠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점들과 물음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논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면과 게을리 하는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남은 논어수업을 통해 더 고쳐나가고 싶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논어와 공자인 만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야겠다. 특히 교수님께서 조언해주신 ‘자기 전에 10분만 그 하루를 되새겨보라는 것을 통해서 수신(修身)을 하고자 한다. 매일 자기 전 십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를 되새겨 보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하루에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 잘못된 점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정리가 된다. 앞으로도 10분씩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를 고쳐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하루, 그리고 매 순간마다의 성찰을 바탕으로 매 순간을 되돌아보고,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수신(修身)의 의미가 아닐까 하며 끝을 낸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 무늬, 2014.



• 장 려 상

수신(修身) :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힘을 기를 것

최두영 | 경영학과

제주도 작은 촌에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엔 어머니가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울며 엄마를 찾을 때, 나는 목 놓아 부를 대상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이 꺼진 방안은 누긋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애뜻함이 있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내가 선택한 것은 어른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신중한 성격에 생각이 깊으며 현명해지고 싶었다. 무언가를 사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표현을 떠나 욕구조차 없는 아이였다.

그런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은 새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나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떠드는 틈에 답을 깨우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듣는 것’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주어진 환경을 핑계로 삶의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에 대해 배웠다. 그런 생각이 발전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슬픈 일을 털어놓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기까지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으며, 그것을 들어줄 다른 누군가를 갈망함을 느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고생을 타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스스

로를 비운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로 날을 세워 타인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된 사람’ 이라면 주어진 것들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이 힘든 와중에도 다른 이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먼저 위로를 건네는 대인배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선, 필요 이상으로 슬픔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자기 연민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망과 격려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긍정의 힘을 주변에까지 미치는 것이 군자로서의 모범일 것이다.

“고심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죄하라고 한다.” (「제씨」)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촉망 받는 인재로 자란 나는, 많은 기대를 받으며 도심의 중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생활은 작은 촌에서의 그것과는 달랐다. 학업은 따라가기 버거웠고 혼자 다른 학교에서 올라온 나는 친구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학원 숙제를 뺏어 해가며 이를 악 물었다.

촌스럽고 덩치도 작은 주제에 공부 해보겠다고 설치는 내가 눈에 거슬렸는지, 왕따가 시작됐다. 판에는 기 싸움에서 지지 않아보겠다고 매일을 싸움질 해가며 악에 받쳤다. 계속된 불안과 스트레스로 장염을 달고 살았고 탈진으로 쓰러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었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재미가 시들해졌는지, 왕따도 없어졌다. 쓰러져버리고 싶을 때, 조금만 더라는 마음으로 버텨내면 그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배웠다.

힘겨운 공부의 끝이 될 줄 알았던, 마치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만 같았던 수능 날, 예상치 못한 압박감과 긴장 상태에 공황에 빠진 나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성적을 기록했고, 굴욕감과 패배감에 물들어 스스로를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 비관했다.

하지만 나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가정형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만큼 처참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 있었으며, 어머니는 새 아이를 가지셨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빚을 내어 재수를 했다.

매일 밤, 배고픔에 복받치는 울분을 씹어 삼키고 공부에 매달렸다. 두 어린 동생들을 떠올릴 때 마다, 작고 순수한 것들을 그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힘없는 이상으로 그쳐선 안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나야 할 산은,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패배의 기억이었다. 지난 실패만을 기억해내는 스스로를 벗어던져야 했다. 고사장에서 느낀 혹독한 무능감과 쓸쓸함, 허무함 같은 것들은 내 몸 곳곳에 박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눈이 아득해지고 손이 주체 할 수 없이 떨리게끔 했다. 수많은 이미지 트레이닝과 연습을 통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신감, 평정심, 성취감으로 바꾸어갔고, 무사히 우리 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든 시련은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마다, 틀림 없는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기는 매번 어렵다. 오늘은 너무 지쳤으니까, 다른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라며 학업을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이다. 그럼에도 나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막상 그 힘든 시간들이 절대 극복하지 못할 무언가가 아니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두 뚫고 지나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학교와 같아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과목은 수업을 반복한다. 극복해내지 못한 약점은 삶의 어딘가에서 나를 자꾸만 찌르고 괴롭힐 뿐이다. 같은 상처에 직면할 때 마다 회피하고 외면하느라 정체되는 인생을 살기보다 즉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바라는 선배로서의 충고 같은 느낌을 주는 문장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공부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

이고, 스스로를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일임을 알려준다.

“가난함과 천박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올바른 도리로써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인」)

부푼 기대로 시작한 대학 생활에서 처음 배운 것은 외로움과 허탈함이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 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우선이었고, 타향살이를 위로할 친구는 없었다. ‘이게 내가 그토록 목매어 온 대학이란 것인가’라는 회의를 뿌리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내가 되어보고자 결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국토대장정이었다. 8월 중순, 햇볕 아래 2주간에 걸쳐 200여 km를 종주하며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스스로를 이겨내는 성취감과 진심을 나누는 동료들 덕분에 모든 일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의 인연들을 계기로 나는 총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람’을 보았고, 또한 ‘현실’의 단면을 보았다. 입학식, 축제, 국토대장정, 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느꼈다. 열정을 내뿜고 감동하고 꿈을 꾸는 모습도 보았지만, 잇속에 눈이 멀어 순진한 이들을 우롱하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 입히는 모습도 보았다. 특히나 당시 나는 회계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믿어온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에 충격 받기도 하고, 살아갈 자신을 잃기도 했었다.

실망 끝에 그들과 같은 수로 대응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분명 있었다. 소위 말하는 ‘눈먼 돈’을 고생의 대가 정도로 여기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은 속 시원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들과 똑같아진 나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다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다.

솔직한 감상으론, 내가 그나마 순수한 학생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나도 나이가 들고,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생기면 얼마나 더 순수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문장을 특히나 내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혹시나 미래의 내가 유혹에 흔들릴 때에 스스로에게 들려주고자 함이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가난하고 미천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나는 학생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3학년이 되어 ROTC 후보생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비웃으며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평화를 사랑해야지, 군인을 하고 있냐?”

나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그게 군인일거다.”

군인에게 군복은 수의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죽음과 맞닿은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아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군인의 무력은 ‘쓰이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하기에, 누구보다 비평화적인 전쟁 훈련을 가까이 하는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군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仁)을 실천하는 일 또한 이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나를 닦는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내가 힘든 수행의 과정을 거칠수록 타인에게 미치는 사랑도 더 커질 수 있다. 난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어여쁘다. 귀하디귀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모두가 마음껏 살아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엔 ‘죽은 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겉으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욕망과 상처 등에 물들어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내면이 딱딱하게 죽은 인간을 되살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도, 돈이나 명예도 아닌 ‘진정한 사랑’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인간

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봐야한다면 자신보다는 타인이 낫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살아갔던 공자께서 인간들의 습성을 통찰하지 못하셨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만 힘없는 이상만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를 아셨기에, 공자께서는 그토록 수신(修身)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 하신 것이다. 즉, 치우치지 않으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갖추는 일이 ‘수신’이다.

길지 않은 내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항상 내가 한 단계 성숙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모두,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것,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 어쩌면 그 자체가 ‘수신’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어진 것들을 인정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자신을 닦는 일로써, 사랑하는 힘이 된다.

요는 자신의 인생부터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곧, 자신을 잘 닦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치인의 경지를 넘볼 자격이 있다. 인간에 대한 과신이네, 이상주의네 하고 유가 사상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지만, ‘치인’하기 전에 ‘수신’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한 공자의 철학은 어쩌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지적이지 않나 싶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도 많다. 특별히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 삶을 끌어안고자 한다. 그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하기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더 건강히, 건전히, 건설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내 주위 모든 이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세상에 보답하는 방법의 출발이라 믿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황병국, 『논어』, 범우사, 1997.



이별, 그 후에 오는 것들

허옥엽 | 문헌정보학과

1. 들어가며

가끔 미치도록 ‘전할 수 없는 편지’를 쓰고 싶을 때가 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헤어진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냥, 문득 오빠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써. 오빠랑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 때 우리, 세상에 우리 둘 뿐인 것처럼 마냥 행복했잖아. 어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 그렇게나 행복했던 우리였는데. 어찌다가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결국엔 우리 사이가 무너져 버릴 때까지 내버려뒀을까. 생각해보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참 유치했던 것 같아. 난 그저 오빠가 알아주길 바랐어. 더 많이, 더 세심한 부분까지 날 사랑해주길 바랐어. 욕심이었지. 나 참 못났었지? 생각해보면, 사귀는 와중에도 나는 늘 오빠를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 내 존재를 당연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어리숙한 마음에 그랬던 걸지도 몰라. 친구들을 만나면 일부러

오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놔. 나는 그렇게라도, 우리의 이별에 대한 책임을 오빠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서로 차갑게 돌아서던 그 날, 나는 화가 나고 억울했어. 짜증나고 불안했어. 오빠는 나랑 헤어진 후에 뭐가 가장 힘들었어? 내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익숙함’이 사라졌다는 것.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오빠랑 함께한 추억이 남아 있어 나를 너무 괴롭게 했어. 평소에 오빠와 함께 걷던 평범한 거리, 자주 가던 식당부터, 사람들이 붐비지 않은 한적한 카페까지. 오빠를 미친 듯이 미워해 보다가도 ‘그 때 내가 좀만 더 참을 걸……’ ‘그 말은 하지 말걸……’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오빠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내 알곳은 자존심으로 오빠를 힘들게 한 거,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줘서. 이제는 오빠의 행복을 바라는 일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내 온 마음 다해 오빠를 사랑했다는 걸. 오빠는 어때? 오빠도 가끔 내 생각 해?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그 때 오빠가 나를 많이 사랑해줬기에 그래서 그 때 정말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기에 정말 고마워.

2. 이(離): 떠날 리, 별(別): 헤어질 별

이별은 항상 사랑 뒤를 따라와

그와 헤어졌다. 그와의 이별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기까지 내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젠, 내 마음 깊숙한 곳, 그 어디에 물어도 ‘그와 이별했다는 사실’은 당연한 대답이 되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부정도 했었다. 그렇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점차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게 됐다. 물론 그를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국 영원히 지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매번 잊었다고 스스로에게 아무리 되뇌어 봐도 말이다. 그와 나는 서로 사랑에 빠졌었고, 우리에게겐 함께 나눈 추억과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들을 잊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혹은 결심한다고 해서 그 ‘추억’ 과 ‘시간’ 과 ‘기억’ 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헤어진 자신의 옛 연인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3. 닳고 닳아진 슬픔이 자리를 내줄 때 찾아온 생각

어설픈것에 더 아름다울지 모르는

번지가 인간다움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니라.”¹⁾ 상대가 아까워서 손을 갖다 대기조차 어려운 마음. 이것이 ‘사람을 아낌’ 이요, 곧 인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내 몸보다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부족한 것은 메워주고 넘치는 것은 건어내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은 내 혈육인 친척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조차 갖기 어려운 마음일지 모른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는 인간다움을 ‘남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의 혈육인 가족이나 친척을 넘어, 인간다움의 조건으로서 사랑을 타인에게까지 확장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나 친척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꼈으며 특히 그를 매우,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렇다면 나는 공자가 말한 ‘인간다움’ 을 갖춘 사람인가?

1)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p.428.

4. 이별이 남긴 과제, 그리고 고민의 파편들

아프지만 떠올려야하는 것들

주희는 『대학』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앎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물에 나아가 하나하나 그 이치를 탐구해 가다 보면 마침내 온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본연적인 지혜도 다 밝아지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물을 ‘사랑’ 으로 치환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나는 그와 사귀는 동안,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키는 대로, 그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그와의 관계를 이끌어나가고자 했을 뿐. 그나마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다면, 그 때는 그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였을 것이다. 그와의 갈등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했던 것 같다.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배려했어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앎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더 다가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사랑의 지혜를 밝히기 위한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보다 투명하고 맑아질수록 사물의 이치가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과, 이렇게 드러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중에 우리의 본래 마음도 완연하게 밝혀진다는 것이 대학의 ‘격물치지’ 의 핵심이다. 나는 그에 대한 서운함, 그에 대한 야속함, 그리고 그로 인한 속상함에 사로잡혀 정신을 투명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감정의 절제를 통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내 마음이 그러한 감정들에 사로잡혀있었음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힘썼을 텐데. 『대학』을 보면 사물에 나아가 앎을 완성하는 격물, 치지의 다음 단계는 '성의'라고 나와 있다.

‘격물’과 ‘치지’의 단계마저 완성하지 못한 내게 ‘성의’란 덕목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었다. ‘성의’란 말 그대로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성실하게 가꾸면 세상에 악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성의’의 본질이며 『대학』에서는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아리따운 얼굴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꾸밈없이 하라고 하였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일부러 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을 늘어놓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조그마한 일들을 더 크게 과장해 이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했었다. 친구들은 내 말을 들으며 공감해줬지만,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줄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중에는 그를 끝없이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들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해버렸다. 이별의 아픔을 당당하게 헤쳐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별 후 내면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나는 그를 끊임없이 미워하며 내 속으로 숨으려고만 했다. 지금 돌아보면 내 사랑이 너무 어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성의’의 다음 단계는 ‘정심’이며,

‘정심’은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대학』에서는 마음속에 노여움이나 두려움,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밤길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면 저 앞에 놓인 나뭇가지가 뱀으로 보이는 법이며, 어떤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면 그 사람이 선의로 대해 오는 것조차 자기를 해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대학』은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말한다.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 보면 눈이 창밖을 향하고 있어 무수히 많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주 큰 슬픔에 잠겼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 것도 마음이 음식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심’이란 덕목 앞에서 나는 우두망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별 후 옹졸했던 내 행동을 너무나도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별 후 그 마음은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의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한 치의 앞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자신이 닦일 수 있다. 자신이 성내고 분한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게 되는 것이다.

5.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 이었다

‘수신’은 ‘정심’의 다음 단계로, 말 그대로 제 자신을 닦는 일을 일컫는다. 『대학』에서는 치우친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수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내면에 어떤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아끼거나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거나, 지나치게 거만한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장점을 알거나 반대로 좋아하면서도 그 단점을 아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참답게 사람을 알거나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우리가 수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별 후 나는 참

어려운 길을 돌아 방황을 한 셈이다. 어쩌면 나에게겐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국엔 쉬운 길을 찾아 헤맨 것일지도 모른다. 난 이제 진정 어려운 길을 걷고자 한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내 자신을 꾸준히 닦아 강하고 튼튼한 내면을 가꿔나갈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그의 제자 안연에게 인(仁)의 구체적 덕목을 말씀하면서 언급한 것도 결국엔 ‘수신’ 인 것이다. 수신은 일체의 근본이 된다. 결국 ‘자신의 몸가짐이 닦여있다는 것’은 한 몸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가짐’에 ‘절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격물치지’를 통한 지혜의 배양과 ‘성의정심’을 통한 사랑과 용기의 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그와 사귀는 동안 키워지 못했던 덕목들이다. 동시에 앞으로 내가 키워나가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써 진정 이 덕목을 마음속에 갇출 수 있을 때 이러한 덕목들로 남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나쁜 점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내 자신이 아무리 싫어하는 대상이라도 그 안에 좋은 점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역지사지’의 제 3자적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내면을 관찰하고 반성할 것이다. 결국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닦여 있어야 한다. 즉 ‘수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끝나치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듯, 아픈 만큼 성숙해지듯

『대학』의 여러 덕목들에 비추어보면, 나는 그와 사랑하면서 그 어느 덕목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셈이다. 그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에, 내가 가진 ‘인간다움’ 또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었다.

『중용』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문을 좋아함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함은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자신을 닦는 바를 알 수 있고, 자신을 닦는 바를 알면 남을 다스리는 바를 알 수 있으며, 남을 다스리는 바를 알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바를 알 것이다.’ 즉, 지혜와 사랑, 용기가 갖추어질 때 수신이 가능해지고, 수신의 근본이 설 때 치인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나와 그 사이의 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 얻어낸 생각을 몸소 실천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나는 사랑에 관한 ‘수신’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수신의 근본이 확립될 때 치인이 되듯, 그와 나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먼저 닦여야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온 천하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 덕목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나아진 것이 있다면, 내가 저 덕목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에 다음 번 연애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와의 이별은 아팠지만, 나에게 자양분이 된 셈이다. 언젠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질지 모른다. 그 때 그를 잊게 되겠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때는 부디 수신의 태도로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 때는 내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참고문헌〉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발 행 일 2016년 1월

기획 · 편집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호암관 2층 50217A

전 화 02) 760-0165~6

- 본 수상작 모음집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균인성교육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본 수상작 모음집은 성균인성교육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